

<한국문화 속의 배설과 순환의 상상력>

2월 인문사회팀 학술대회 발표문

(사이언스월든 &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공동주최)

2021년 2월 17일

목차

1. 구전설화 속 '방뇨담'의 양상과 의미 / 김용선	1
2. 한국어 자료에서 발견되는 '똥'의 의미/기능 변화 / 이성우···	10
3. 똥과 시적 상상력 / 오성호.....	23
4. 서울의 똥오줌 수거체계의 재형성과 변화 / 소준철.....	44

구전설화 속 '방뇨담'의 양상과 의미 -분뇨서사가 전하는 배설의 윤리-

김용선(한양대)

목차

I. 서론
II. 오줌의 민속문화적 이해
III. 구전 속 남성과 여성의 방뇨담들
IV. 분뇨서사에 나타난 소변행위의 상징
V. '배설의 윤리'라는 방뇨담 속 배설문화의 자취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I. 서론

생명이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하여 물은 흔히 만물의 근원으로 인식되곤 한다.1) 생명의 발원이며 신비스러운 액체인 물은 때로 생명체 내부에서 바깥으로 환원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가령 땀, 눈물, 콧물, 침, 그리고 오줌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수분(水分) 그러니까 물기를 지닌 대상들이다. 여기에서는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수분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다고 여겨지는 오줌만을 주목한다. 배출인 동시에 배설인 방뇨에 대한 서사적 고민을 담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배설은 공교롭게도 고체(방분) · 액체(방뇨) · 기체(방귀)의 모든 형태를 고루 갖출 줄 안

1) “물은 항상 모든 에너지, 물리적이고 형이상한 적인 모든 에너지의 근원으로 칭송되어 왔다. 자연철학자들은 물을 자신들이 ‘불안정한 혼돈’이라고 언급한 유기체 형성 과정의 근원으로 인식하였다. 물은 그것이 지닌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으로 인해 단순한 물질 이상의 형이상학적인 요소로까지 그 위치가 격상되기도 한다. 고대 문명에서는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종자가 되는 액체로, 지구 자궁의 즙으로 신성시되었다. 무색 투명한 액체인 물은 모든 피조물과 산, 구름 등 세상 만물의 근원을 비추는 우주의 거울이다.” 알레브 라이클 크루티어著 · 윤희기譯, 『물의 역사』, 예문, 1997, 19~22쪽.

다. 연구자는 앞서 똥과 방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서사적 관찰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분뇨서사’라는 용어를 만든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언 밭에 오줌 누기’²⁾란 옛 속담이 있다. 옛 말이 전하려는 뜻대로 방뇨는 무용한 임시방편에 지남 아닌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소피 장소가 ‘언 밭’인 것이 문제일 뿐이다. 만약 얼지 않은 밭이었다면 땅에 훌륭한 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오줌’은 어떤 민족에게는 전통의식의 춤이자 신체건강의 약제가 되기도 한다. 역사 속에서 ‘소변’은 위생을 위한 치약, 비누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고 세금징수의 대상이었던 적도 있다.³⁾ 방뇨의 스펙트럼은 시대와 나라, 그리고 민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한 ‘귀한’ 배설물의 하나인 것이다. 고전서사 속 방뇨 즉 소피행위는 단순한 일상생활의 행위 중 하나이거나 생리현상의 하나로 소개될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서사적 상징과 양상에 있어 일상성을 벗어난 특이점을 갖기 때문이다.⁴⁾

정형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창조신화 속 지리산 천왕성모, 마고할미, 설문대할망설화에 방뇨는 창조, 풍요, 산신적 성격을 노출시키며 인물간의 결합은 신성결합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⁵⁾ 방뇨몽과 꿈의 매매와 관련된 방뇨몽 설화 속 방뇨는 대체로 산상방뇨로 천하에 넘친 소피는 정치세력, 왕권을 지닌 존재의 탄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굿놀이 속에 등장하는 방뇨 주체는 당산신 혹은 무당으로 산신적 성격 대신 생산 주체가 부각된다고 보았다. 여성 방뇨가 창조신화에서 인물전설, 굿놀이, 가면극으로 갈래가 나뉘며 시대 흐름에 따라 훼손되어 가며 방뇨는 여성의 욕구 표출 수단이거나 이성 유혹의 수단으로 형상화 되었다고 분석한 것⁶⁾인데 본고 역시 궤를 같이 하되 방뇨담의 양상에 따른 특이점을 보다 세분화 해보고자 한다.

분뇨서사로서 방뇨담 분류로부터 보다 나아가 배설의 도덕적(moral)이며 윤리적(ethical)⁷⁾인 문화관습의 흔적을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위생적 차원과는 또 다른 배설 행위를 담아낸 방뇨담의 ‘이면(裏面)’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윤리’란 ‘윤리학’으로의 엄밀한 의미를 지닌 학술과 학문체계로의 윤리이기 보다는 다소 느슨한 의미로의 ‘윤리’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오줌의 민속문화적 이해

동물의 오줌이 단순히 영역표시이거나 배설에 지남 아니라면 인간의 오줌은 보다 다양한 층계를 갖는 액체로 인식되어 왔다. 『신성한 똥』의 저자 존 그레고리 버크는 1881년 11월 17일 저녁, 뉴멕시코의 어느 주니족 마을에서 ‘오줌춤’을 목격하고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된다. 이들의 춤은 음뇨행위까지 포함된 것이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지만 여기에는 민족적 문화로의 까닭을 담고 있었다. 주니족에게 오줌춤은 일종의 의술적 예방 행위였던 것이다.⁸⁾ 김광언에 의하면 오줌은 ‘오줌’에서 유래되었

2) 눈앞의 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변통이 결과적으로 더 나쁘게 되었을 때 하는 말. 한국민속협회編, 『한국 속담집』, 서문당, 2003, 230~231쪽.

3) 존 그레버리 버크, 『신성한 똥』, 까치글방, 2002.

4) “민속에는 다양한 방뇨가 나타난다. 방분보다는 방뇨가 많으며, 남정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여성 방뇨는 단순한 몸 안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한다는 의미나 방뇨에 의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켜 남성을 유혹한다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방뇨 행위가 특이하고, 그 주체가 일상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를 통한 남녀의 결합이 범인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형호, 위의 글, 87쪽.

5) 방분과 방귀에 대하여서도 역시 동일한 이해가 그간 학계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모두 배설물을 소재로 삼은 서사군에 대하여 거인여신의 흔적으로 똥과 오줌을 주목한 경우들이다. 연구자 역시 <방귀쟁이 며느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자들과 궤를 같이 하여 분석한 바 있다.

6) 정형호, 「여성 放尿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인식 변모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4, 동아시아고대학회, 2001.

7) 도덕(moral)은 라틴어 ‘mores’, 윤리(ethical)는 희랍어 ‘ethos’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루이스 포이만 · 제임스 피저共著 류지한外 共譯, 『윤리학』, 울력, 2020, 15쪽.

8) 주니족의 오줌춤에 관하여서는 존 그레고리 버크, 같은 책, 21~25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다고 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오줌’으로 변이된 것은 17세기 이후라고 한다. 중세와 근세에는 ‘자근쇼마’, ‘저근쇼마’라고도 불렸다고 한다.⁹⁾

한국의 오랜 민속에서 오줌은 생명력이 있어 풍어를 상징하거나 남녀를 가르치는 잣대가 되고, 남성의 오줌은 남아 출산을, 여성의 오줌은 농사의 풍요를 상징하며 나아가 오줌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면 오줌 담긴 병을 문에 거꾸로 걸어놓기도 했으며 오줌을 약재로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¹⁰⁾ 나아가 다음과 같이 오줌에 관한 속담과 금기도 적지 않다. 나아가 요강과 관련된 속담도 있을 정도인데 김광언의 소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오줌 속담

- ① 꿀에 수캐라고 다리 들고 오줌 논다. (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체 한다)
- ② 도감 포수의 오줌 짐작이라. (일을 잘못 대중잡다가 망친다.)
- ③ 불장난하면 오줌 온다. (불장난은 위험하다.)
- ④ 씻은 하문에 오줌 논다. (일껏 깨끗이 치웠더니 곧 더럽힌다.)
- ⑤ 언 밭에 오줌 누기 (오히려 나쁘게 되다)
- ⑥ 오줌 누는 새에 십 리 간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잠시라도 쉬면 큰 차이가 난다)
- ⑦ 오줌에도 데겠다 (몹시 허약하다.)
- ⑧ 점잖은 개가 부뚜막에 오줌 온다 (점잖은 체 하더니 엉뚱한 일을 저지른다.)
- ⑨ 제 발 등에 오줌 누기 (스스로 명예를 떨어뜨리다.)
- ⑩ 개가 장승 무서운 줄 알면 오줌 놀까? (미리 알았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 ⑪ 오줌소리 듣고 외상준다 (오줌누는 소리로 건강을 짐작한다.)
- ⑫ 오줌에 씻겨 나온 놈이다 (아무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2) 오줌 금기

- ① 먹는 물에 오줌을 누면 저승에 가서 자기 머리털로 오줌을 빨아들여 물과 분리해야 하는 별을 받는다.
- ② 임산부가 소 머리말에 오줌을 누면 낳은 아기가 침을 흘린다.
- ③ 쥐구멍에 오줌을 누면 독기가 뿜어져 나와 성기가 붓는다.
- ④ 지렁이에 대고 오줌누면 성기가 붓는다.¹¹⁾

(3) 요강 속담

- ① 시앗 싸움에 요강장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끼어 들어 참견한다)
- ② 헌 분지 깨고 새 요강 물어준다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본다)
- ③ 요강 단지 받들 듯 (매우 조심한다)

9) 김광언, 같은 책, 236~237쪽에 『석보상절』, 『능엄경』, 『훈몽자회』, 『동의보감』 등에서 ‘오줌’의 용례를 들었으며 『구급간이방』의 용례를 통해 소변은 15세기에 쓰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10) 김광언, 같은 책, 239~243쪽 참조. 김광언은 오줌을 약으로 쓴 보기를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정리하였다.
 ①처녀 오줌에 유향을 섞어 하룻밤 재운 다음, 햇볕에 말렸다가 가루를 내어 식후에먹으면 임질에 좋다(평안북도) ②산후에 기침이 심하면 두 서너 살 난 아이의 오줌을 마신다(평안북도) ③천식 환자는 한 살에서 다섯 살 난 아이 오줌에 생강을 타서 마신다(평안북도) ④성홍열에는 남자인 경우 달걀을 황소 오줌에 하루 담갔다가먹고, 여자는 암소 오줌을 이용한다(경기도) ⑤장티푸스에 요강에 달걀을 삶아 먹는다(경기도) ⑥위장병에 어린 여자아이의 오줌을 마신다(경기도) ⑦폐병환자는 피를 토하면 어린아이의 오줌을 마신다(전라남도) ⑧복통에는 관청의 오줌을 훔쳐와서 물에 타 마신다(경상북도) ⑨가슴앓이에 흰말의 오줌을 끓여 마신다(전라북도) ⑩설날 그믐날 밤에 눈 오줌에 달걀을 삶아 먹으면, 새해에 돌림병에 걸리지 않는다(경상남도) ⑩코 피가났지 않으면 오줌에 물을 타서 마신다(황해도) 김광언, 같은 책, 243~244쪽.

11) 김광언, 같은 책, 246쪽.

- ④ 복 있는 과부는 늘 요강 꼭지에 앉는다 (운수가 좋은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긴다)
- ⑤ 사위가 고우면 요강 분지를 쓴다 (사위는 처가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 ⑥ 요강 뚜껑으로 물 떠먹은 듯 하다 (꺼림칙하다)
- ⑦ 시집 열 두 번 갔더니 요강 서울에 선 두른다 (무슨 일을 여러 번 당하면, 좋은 일도 있다)

방뇨와 관련한 속담과 금기를 통해 우리는 소변행위가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우리 민족의 문화사 속에서 소변은 다양한 은유와 상징의 소재로 변주해온 것이다.

소변행위에 관한 민족적 관행을 거칠게나마 살펴보면, 동아시아에서 몽골 남자들은 앉아 오줌을 누며, 이는 네팔·방글라데시·인도 남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남자는 서서 똥과 오줌을 누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고 하며 중국에도 역시 남성이 앉아 누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이란 남성의 경우 앉아 소변을 보는 까닭에 남성용 소변기가 없었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 일본 간사이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여자들이 서서 소변을 보았다고 한다. 여성이 서서 소변을 보는 관행은 북 아메리카 아파치족, 모하브족, 아프리카의 앙골라족 여성은 물론 유럽의 이탈리아와 프랑스 여성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¹²⁾ 이처럼 세계의 민족문화 속에서 방뇨행위의 다양성 만큼이나 오줌은 다채로운 상징과 의미를 담아내는 행위의 주체이자 배설물이라고 하겠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의 오랜 방뇨담들을 마주하여 보고자 하다.

Ⅲ. 구전 속 남성과 여성의 방뇨담들

옛 이야기 속 여성의 방뇨담은 흔히 ‘출산’과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된 네 편의 이야기를 보고자 한다.

“옛날에 큰 부잣집의 아씨가 항상 밖에 나가서 오줌을 똥다. 그러다가 하루는 새 한 마리가 와서 아씨가 눈 오줌을 찍어 먹더니 그곳에 털 하나를 꽂았다. 그 집의 머슴이 새털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씨가 오줌을 눈 자리에서 새털을 꽂으면 아씨의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부잣집에서는 걱정을 하며 의원들을 불러 검사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머슴은 자기가 고칠 테니 아씨를 달라고 했다. 부자는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딸의 병세가 더 심해지자 머슴에게 딸을 주기로 하고 고쳐 달라고 했다. 머슴은 새털을 뽑아서 아씨의 병을 고쳤다. 머슴은 아씨와 결혼해 부자 행세를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상한 새의 털로 주인 딸과 결혼한 머슴¹³⁾

시집가는 여자가 오줌 누는 이야기(똥이 임신시키는 이야기 혹은 이빨 관련 이야기)

- 1 옛날에 어떤 여인이 시집가는 신행 도중 오줌이 마려워 노상방뇨를 하는 중 똥이 여인의 속옷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 2 이로 인하여 여인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콩알이라고 하였다.
- 3 콩알이가 무럭무럭 자라 장가를 간다.
- 4 첫날밤 각시가 누워있는데 콩알이가 일어나라 하여, 부부는 어떤 산골로 들어간다.
- 5 산 속에 사는 노인은 콩알이를 죽이려고 한다.
- 6 아내가 노인의 시도를 막자 노인은 소원을 들어주는 어금니를 준다.
- 7 노인의 어금니는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밥 나오라 하면 밥이 나온다.
아내가 또 다른 기능을 재차 묻자 노인은 미운 사람 죽으라고 하면 죽는다고 한다.
- 8 아내는 어금니를 이용해 노인을 죽이고 남편 콩알이를 살리고 부자가 되어 살게 되었다.

12) 김광언, 같은 책, 247~252쪽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15, 역락, 2017, 574~576쪽.

오줌 여덟 가닥과 팔 남매

한 메느리는 시어머이가 인제 시집살이를 하고 살다가 그것두 인제 가매 태워가지고 가는 거여. 가는데 그 메느리는 가마채 놓으라 그래가지고 오줌을 누니까는 오줌이 저런데 인제 한 군 데 가서 숨어서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 줄기가 몇 가닥이 나가니까는 아마 너무 덜렁덜렁 했던 모양이여. “아버님, 아버님 내가 오줌이 저기 여덟 가닥, 여덟 가닥이 나가니까는 저기 아들들 8남매를 진사 급제시킨, 시킨다고” 소릴 지르민 “아버님, 아버님” 하고 좋다고 그러더라. 그 이듬해 시집가서 참 아들을 8남매 낳아서 그렇게 진사급제 시키구 그렇게 잘 살더라.

옛날에 바보 같은 며느리가 있어 하루는 시어머니께,

“아이를 어디로 낳느냐?”

고 물으니,

“배꼽으로 낳는다.”

고 했다. 밭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오줌이 마려워 풀밭에서 소변을 보다가 풀밭에 있는 메뚜기가 놀래어 날아가니 며느리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아가 아가, 너거 부친 생면(生面)하고 가거라.”

하고 쫓아가 잡아 보니 그 메뚜기 아들은 머리는 증조부 대머리 닮고 입은 쪽 찢진 장터거리 고모 닮고 앞정쟁이(앞정갱이)는 증조부처럼 길었더라 한다.

바보 며느리와 메뚜기¹⁴⁾

〈이상한 새의 털로 주인 딸과 결혼한 머슴〉은 대체로 지체 높은 집안의 미혼 여성에게 노상 방뇨라는 ‘기이한’ 버릇을 설정한다. 그 집안의 총각 머슴이 아가씨의 기이한 행각을 목격할 즈음 때마침 날아온 새가 음뇨를 하고는 딸이 소변 놓은 자리에 털을 꽂아둔다. 대체로 조류는 구전서사에서 뉘를 상징한다. 새가 여성의 노상방뇨 장소에서 음뇨하고는 자신의 깃털을 그 자리에 꽂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면에서 여성의 노상방뇨가 비도덕적인 탈선 내지는 ‘얼빠진’ 행위로 받아들여 질지도 모른다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머슴이 새의 깃털을 습득하여 주인 딸의 하문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게 되자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된다. 아무리 용한 의원도 소용없는 하문의 소리를 오직 머슴이 멈추게 하여 결국 지체높은 여성과 혼인에 이르게 된다는 방뇨담으로 이는 일종의 ‘혼인설화’로 이해할 만 하다.

여성의 노상방뇨가 대체로 ‘조류’와 엮여서 혼인 혹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시집가는 여자가 오줌 누는 이야기(똥이 임신시키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서사구조 후반은 콩알이부부와 식인노인 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지만 콩알이의 탄생담에는 어머니의 노상방뇨가 있다. 여성의 노상방뇨가 조류와 교합하여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일종의 이물교혼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방뇨행위가 출산 등의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오줌 여덟 가닥과 팔 남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이 방출하는 오줌가닥이 고스란히 자녀의 수와 일치를 이루고 며느리의 발언이 예언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여성의 노상방뇨와 출산 간의 관계를 해학적으로 풀어낸 서사로는 네 번째 서사인 〈바보 며느리와 메뚜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방뇨담 속 며느리는 일종의 ‘바보 색시’군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단순히 소담으로 볼 것인가 하면서도 소변이라는 방출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해산으로 이해하는 며느리의 엉뚱함은 방뇨담이 갖는 생산성이 풍자와 해학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태종춘추공

14) 조희웅, 『현지채록 구비전승 자료집 이야기 망태기 1 서울·경기·강원·충북(1)』, 글누림, 2011, 372쪽.

제29대 태종대왕은 이름이 춘추이고 성은 김씨인데 용수 각간, 즉 추봉된 문흥대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진평대왕의 딸인 천명부인이고, 왕비는 문명황후 문희니, 바로 김유신 공의 막내누이다. 이전에 어느 날 문희의 언니 보희가 꿈에 서악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경성에 가득 찼다. 아침에 동생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문희가 말했다. “내가 이 꿈을 살게.” 그러자 언니가 말했다. “무슨 물건을 주겠니?” 동생이 말했다. “비단치마를 주면 되겠어?” 언니가 말했다. “그래.” 동생이 꿈을 받으려고 치마폭을 벌렸다. 언니가 말했다. “어젯밤 꿈을 너에게 주겠다.” 동생은 그 값으로 비단 치마를 주었다. 열흘 뒤 김유신은 정월 오기일에 춘추공과 함께 자기 집 앞에서 축국을 하다가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밟아서 웃고름을 찢고는 말했다. “우리 집에 들어가 꿰맬시다.” 춘추공은 이에 따랐다. 김유신이 아해(문맥상 보희)에게 꿰맬도록 하자 아해가 말했다. “어찌 사소한 일 때문에 경솔히 귀공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사코 사양하였으므로 아지(문맥상 문희)에게 시켰다. 춘추공은 김유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지를 가까이하여 이후 자주 왕래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은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크게 꾸짖었다. “내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임신했으니, 어찌 된 일이나” 그러고는 자기 누이동생을 불태워 죽일 것이라고 온 나라에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선덕여왕이 남산으로 행차하기를 기다렸다가 뜰에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일어나게 했다. 왕이 남산에서 내려다보고는 무슨 연기냐고 물으니 신하들이 말했다. “김유신이 그의 누이를 불태워 죽이려는 것입니다.” 왕이 그 까닭을 묻자 말했다. “그 누이가 지아비 없이 임신을 했습니다.” 왕이 물었다. “누구의 소행인가?” 이때 춘추공이 앞에서 가까이 모시고 있다가 안색이 갑자기 변하자, 왕이 춘추공을 보며 말했다. “이는 네 소행이구나. 빨리 가서 구하라.” 그래서 공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말을 달려 왕명을 전하고 중지시켰다. 그 뒤에 혼례를 치렀다.¹⁵⁾

방뇨몽을 길몽으로 본 시선은 이미 임동권(1966)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매몽(買夢)설화로도 분류되는 문헌설화 『고려사』 수록 <진의매몽> · 『삼국유사』 수록 <문희매몽>에 대하여 노영운은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늠하여 상대방을 드높여주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자신의 소망도 상대방을 통해 성취되기를 바란 뜻이 있는 것”이라 보았다.¹⁶⁾ 이는 방뇨몽 서사 속 심리의 일면을 분석한 성과이다. 그러나 본고는 방뇨담의 심리적 특성보다는 방뇨몽과 매몽담이 갖는 ‘발복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발복성의 근원은 거인여신들의 거대한 생산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구할머니가 오줌을 싼 바위>, <영등 할머니가 오줌을 뉘서 생긴 금바위>가 이에 해당되는 서사라 하겠다. 거인여신의 생산성은 영웅의 부모를 설명하는 서사로 <김좌진 어머니의 힘자랑과 오줌발>과 같이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는 임신, 출산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오줌발이 세서 부자 된 딸>, <서낭당에 오줌 누고 부자 된 남자>, <오줌 누고 부자 된 남자>’는 방뇨행위가 갖는 경제환원의 발복 상징을 드러내고 <장사 발자욱과 오줌 눈 자리>는 이인성의 상징으로 방뇨 흔적을 소개하고 있다.

IV. 방뇨서사에 나타난 소변행위의 상징

소변행위가 ‘노상’에서 이루어지거나 예에 어긋나는 경우를 그려낸 구전으로는 <화룻불에 소변봐서 망신당한 안사돈>, <바위 밑에 소변 보다 가재에 물린 이야기> 등이 있는데 이는 방뇨담이 어디까지나 우스운 소화(笑話)의 소재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소변행위에는 방뇨라는 아브젝트와 방뇨행위에 관한 아브젝시옹으로 두려움의 유혹이 깃들기도 한다. 신성한 장소에서의 노상방뇨가 주는 일종의 죄의식의 경우, <절에서 오줌 싸다가 있었던 일>, <당숲에서 소변보고 직 맞아 죽은 이야기>의 경우가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 ‘교회’에서 한 노상방뇨가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대구전으로 서구에서 유입된 기독교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서낭

15) 일연·김원중譯, 『삼국유사』, 민음사, 2009, 125~127쪽.

16) 노영운, 「설화 속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과 그 의미-설화 <진의매몽>과 <문희매몽> 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당, 사찰과 동일한 신성공간으로 평가하는 점이 주목된다. 성의 공간에서 노상방뇨는 결코 신화소로의 소재가 아닌 속의 행위로서 징벌 대상이 되고마는 것이다.

여자와 계¹⁷⁾

넷날에 어니 여자레 길을 가다가 오종이 매리워서 갈밭에서 오종을 싸구 있느라느꺼니 그 오종이 갈귀이에 구녕으루 술술 들어갔다. 도운 물이 들어오느꺼니 갈귀이는 무슨 일인가 하구 나와서 보느꺼니 여자에 공알이 있어서 갈귀이는 그걸 깎 물었다. 그러느꺼니 낸은 깜짝 놀래서 갈귀이레 공알을 물어서 아프대는 소리를 너머 급해서 공계 공계 하멘 과됐다. 그때 한 남자가 그곳으루 지내다가 낸이 과티는 소리를 듣구 구해 줄라구 거기 가서 입으루 귀이 발을 깎 물었다. 그랬더니 갈귀이는 다른 엄지발루 이 사람에 헛덱일 깎 물었다. 이 사람두 아파서 헤에헤에 하구 있었다구 한다.

위의 방뇨담 역시 노상방뇨에 관한 성애적 요소를 소담으로 담아내고 있다. 소화의 소재로 활용될 경우 이는 꼬마신랑, 바보사위의 우인담과 연결되어 <오줌싸개 신랑을 감싸준 각시>, <오줌싸개 사위>, <장인 얼굴에 오줌 눈 사위>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들 혼인문화와 연결될 경우 서사 속 인물의 소피 행위는 풍자의 역할을 하거나 은폐되어 있는 혼인문화의 어려움, 균열 등을 노출시켜주는 서사적 방출 화소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소피행위는 신성성과 생산성을 지니던 초기의 모습과 달리 후대로 오면서 육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아래 서사는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여자 오줌누는 소리¹⁸⁾

新婦(신부)가 가매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가다가 오줌이 매리워서 오줌을 누는데 新婦(신부)는 女子(여자)이니까 男子(남자)들처름 밖에 나오사기 누지 못하지요. 그래 가매 안에서 뇨요강을 놓고 오줌을 눕니다. 오줌 누는 소리를 아래에 들어보면 六甲하년 소리가 나요. 六甲을 어떻게 하나 하면 처음에 ‘수우르르르 甲戌’이라거든요. 계 女子 오줌 누는 소리가 그러찬소. 요강에 누니가 감수르르르 하지요. 그러다가 乙亥乙亥乙亥해요. 그러다가 끝판에 가서는 丙子丁丑丙子丁丑이라거든요. 마칠 때 들어보세요. 丙子丁丑丙子丁丑이라지요. 그래 女子가 오줌 누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六甲하는 소리지요.

1975년 청주군 채록

<소변을 받기 위해 손님 초청하기>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전으로 방뇨 즉 소피행위를 거름과 연관지어 평가하는 이야기임을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네 뒷간 문화와도 연결되는데 우리는 예부터 화장실을 뒷간으로 불렀다. 뒷간문화는 우리가 예부터 남다른 위생관념과 방분, 방뇨문화를 지녀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역사적 흔적이다.¹⁹⁾ 뿐만 아니라 호자(虎子)²⁰⁾, 요강²¹⁾ 등 소

17) 임석재, 『임석재전집2』, 평민사, 1988, 208~209쪽.

18) 임석재, 『임석재전집4』, 평민사, 1989, 255~256쪽.

19) “뒷간이 없는 나라도 많다. 또한 유럽의 경우도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뒷간이 없어 담장이나 나무 밑에서 똥을 누었고, 아침이면 길거리에 똥을 마구 버리는지라 그 똥을 맞지 않기 위해 파라솔이 나왔고, 똥 밟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굽이 높은 구두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뒷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연학, 「뒷간, 그 서구문화의 확실한 식민지」, 『실천민속학』3, 실천민속학, 2001, 161쪽.

20) 입을 크게 벌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는 남성용 토기 요강이다.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호자(虎子)는 7세기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의 호자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호자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호랑이의 등 부분에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한 손으로 이 손잡이를 잡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랑이가 앞다리를 굽추 세우고 상체를 들어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다. 동그란 토기 입구가 호랑이의 입이며 입 위쪽으로는 작은 눈 2개와 수염이 그려져 있다. 중국의 고대 기록에는 황제가 행차할 때 시중을 드는 하인이 이 호자를 들고 뒤따랐다는 내용이 전해져 온다. [네이버 지식백과] 호자 [虎子] (두산백과)

21) 우리말 요강은 한자말 요강溺缸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에는 이밖에 요공溺缸, 요강溺江, 설기褻器, 수병漚

피행위와 연결된 도구를 사용해 온 민족이기도 하다. 이중 요강과 연관된 우스운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²²⁾

〈소변을 마신 우암〉, 〈우암의 사약에 소변 섞은 미수〉의 경우, 약재형 방뇨담의 일종으로 동시에 전설형 방뇨담으로 판단될 것인데, 역사적 실존인물인 우암 송시열의 최후를 구전서사로 전환하면서 그의 비극적 최후에 소변이 죽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주목된다.

V. ‘배설의 윤리’라는 방뇨담 속 배설문화의 자취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 고전서사 속 방뇨담을 ‘발복형 방뇨담, 약재형 방뇨담, 생활형 방뇨담, 성애형 방뇨담, 전설형 방뇨담, 바보형 방뇨담’의 여섯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❶ 발복형 방뇨담에는 방뇨몽을 꾸어 매몽행위로 이어지며 권력을 쟁취하는 서사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소피행위를 소개한 방뇨담이 해당되었다. ❷ 약재형 방뇨담은 소변이 일종의 약재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서사 속 주인공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약재형 방뇨담은 역사인물과 결부되어 전설형 방뇨담이 되기도 한다. ❸ 생활형 방뇨담은 방뇨가 거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부각하거나 요강 등 소피와 연관된 물건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해당된다. ❹ 성애형 방뇨담은 발복형 방뇨담과 전설형 방뇨담에 해당되는 신화소로의 소피행위가 성적 화소로 전락한 경우라 하겠다. 여성의 경우 노상방뇨가 남성을 이끌어 두 남녀 모두 위기를 맞이하거나, 남성의 경우 여성 전승집단의 육담대상이 되고 만다. ❺ 전설형 방뇨담의 경우 거인여신, 영웅의 어머니가 남긴 흔적이 담기거나 역사인물의 비극적 결말을 설명해주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❻ 바보형 방뇨담은 혼인서사와 연관되어 꼬마신랑, 바보사위, 바보며느리의 위생관념과 관계된 이야기로 소개된다.

이들 방뇨담은 분노서사의 맥락에서 일종의 배설 윤리를 지닌 서사로 이해할 만 하다. 여섯 가지 방뇨담 모두 일정한 금기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❶ 발복형 방뇨담에는 오줌꿈이나 소변행위가 지닌 가치에 대한 금기가 권력이동, 부의 생산, 자녀출산 등에 작동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❷ 약재형 방뇨담의 경우에는 인물의 죽음을 지연하는 데에 오줌이 활용될 만큼 오줌의 약효에 관한 금기가, ❸ 생활형 방뇨담에서는 농업생산에 있어 함부로 할 대상이아니라는 금기가, ❹ 성애형 방뇨담에서는 유혹의 상징으로 주의를 하게 만드는 금기가, ❺ 전설형 방뇨담에는 신화적 방뇨행위의 흔적이 금기로 남았으며, ❻ 바보형 방뇨담에서는 해학대상으로 전락한 신화의 끝자락을 일종의 웃음이 주는 금기로 이해하게 한다.

고전서사 속 방뇨담의 상징과 의미는 ‘오줌가닥’ 만큼이나 다양한 상징과 ‘오줌발’ 만큼이나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보다 정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향후 연구과정과 논의 원고를 가다듬고자 한다. 토론과정 중에 엄한 질정을 바란다.

瓶 따위로 적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요기溺器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일반에서는 ‘오줌단지’(영·호남), ‘야호夜壺’라고도 불렀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전산DB

22) 요강을 보고 가슴기를 만든 미국(2011, 충청북도 진천군 용암1길10) 미국농들이 우리나라 거 와서 다 비밀, 다 그 전에 오십(50)년 전에 다 빼 간겨. 뽕끼공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그라고서 또 있어. 뭘 또 빼 갖느냐면은. 이거 왜 저 가슴기. 가슴기도 이농 새끼들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간 거야. 아. 왜냐. 딱 보니까 집집마다 보니까. 아 겨우내{겨울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슴기가 집집마다 다 있는겨. 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니 한국엔 어떻게 가슴기가 집집마다 있느냐니깐. 아니 무슨 가슴기여 그러니까. 오강을 하나씩 낫단 말이여. 그 전에 오줌을 누면 그게 수증기가 돼서 코가 안 말, 말리지 않고서 감기도 안 걸리니까. 야. 이거네. 이거 한국농들이 참 가슴기를 벌써 놓고선 …… [제보자 웃음] 한국농들은 벌써 오십(50)년대 가슴기를 놓고 사니까. 미국은 그 칠십(70)년대에 맹글었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가슴기 빼내갔지. 뽕끼 빼갔지. 다 뺏긴겨. 좋은 건. 이거로 마치지 뭘.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역락, 2017.
- 임석재, 『임석재전집2』, 평민사, 1988.
- 조희웅, 『현지채록 구비전승 자료집 이야기 망태기 1 서울·경기·강원·충북(1)』, 글누리, 2011.
- 일연著·김원중譯, 『삼국유사』, 민음사, 2009.
- 김광언, 『동아시아의 뒷간』, 민속원, 2002.
- 루이스 포이만·제임스 피저共著 류지한外 共譯, 『윤리학』, 울력, 2020
- 아리스토텔레스著·전영우譯, 『니코마코스 윤리학』, 대원사, 2018.
- 알레브 라이클 크루티어著·윤희기譯, 『물의 역사』, 예문, 1997.
- 존 그레고리 버크著·성귀수譯, 『신성한 똥』, 까치, 2002.
- 줄리아 크리스테바著·서민원譯, 『공포의 권력』, 東文選, 2001.
- 존 그레버리 버크, 『신성한 똥』, 까치글방, 2002.
-
- 정형호, 「여성 放尿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인식 변모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4, 동아시아고대학회, 2001
- 노영윤, 「설화 속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과 그 의미-설화 <진의매몽>과 <문희매몽>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 정연학, 「뒷간, 그 서구문화의 확실한 식민지」, 『실천민속학』3, 실천민속학, 2001

한국어 자료에서 발견되는 ‘똥’의 의미/기능 변화

이성우(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목차

1. 서론
2.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똥’의 모습
3. 현대 자료에서 확인되는 ‘똥’의 모습
4. 결론

1. 서론

‘똥’의 한자를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검색해보면, ‘糞’, ‘糞’이 뜬다. 이 두 한자는 음역자로서 한국에서 형성된 한자로 생각되는데, 보통 속격조사 ‘ㅅ’에 대응하던 ‘ㅈ’과 ‘똥’을 나타내는 ‘똥’이 합쳐져 ‘똥’을 표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한국어의 똥이 국어사 자료에서는 ‘똥’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선조들은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여 ‘똥’을 우리의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똥’이 그만큼 우리의 역사와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발표문은 국어사 자료에서 ‘똥’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어사 자료를 통해 우리의 선조들이 ‘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는 국어사 자료를 생활사 자료로 접근하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¹⁾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20세기의 자료까지도 망라하여 ‘똥’을 우리의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시기까지 다루는 이유는 ‘똥’의 의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이 발표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가. 국어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똥’의 모습을 확인한다.

나. 선조들의 생활에서 ‘똥’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한다.

다. 선조들의 생활에서의 ‘똥’과 우리 생활에서의 ‘똥’을 비교해본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어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똥’의 모습을 논의하려고 한다. 국어사 자료에서 ‘똥’을 조사하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똥’을 살펴보려 한다.

1) 국어사 자료는 한국어 문법의 역사를 다루는 것에 유용한 자료이면서 동시에 우리 선조들의 생활을 반영한 생활사 자료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국어사 자료를 생활사 자료로 활용하려는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로는 언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언해 자료 등도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2) ‘똥’을 치료제나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에도 있는 일이며, 과거에는 더욱 빈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일이 현대의 화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일일 수 있으므로,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똥’에 대한 개념 변화, 의미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언어적인 수단에서도 드러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사항까지 포착하기 위해 20세기의 국어 자료까지도 다뤄보려고 한다.

하나는 ‘똥’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똥’의 쓰임이다. 전술했듯이, 국어사 자료는 생활사 자료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우리 선조들이 ‘똥’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이 발표문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의 역사 자료 코퍼스를 기본 자료로 삼되, 때에 따라 <조선왕조실록>도 활용할 것이다.³⁾

3장에서는 현대 자료를 대상으로 ‘똥’의 모습을 살핀다. 이를 통해 국어사 자료 속의 ‘똥’과 현대 자료 속의 ‘똥’의 모습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현대 자료 속의 ‘똥’의 모습을 다루려고 한다. 하나는 ‘똥’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똥’의 쓰임으로, 2장의 그것과 같다. 이를 위해 기본 자료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물결 21>을 활용한다.⁴⁾ 이 두 자료는 시기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똥’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변화 양상을 포착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발표문에서 다루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똥’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똥’의 사용이 역사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아 4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2.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똥’의 모습

이 장에서는 국어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어사 자료에서 ‘똥’은 ‘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똥’의 어원은 밝혀져 있지 않다.⁵⁾ ‘똥’이라는 점에서 ‘스동’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의 ‘스’는 속격조사로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동’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동’이 단순히 경음화되어 ‘똥’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똥’의 어원을 규명하는 작업보다는 국어사 자료에서 ‘똥’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풀어보는 것이 더욱 가치있는 작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똥’의 의미와 사용 변화를 국어사 자료 및 역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정리해보려고 한다.

2.1 [더러움], [천함] ⇒ [사람]

현대 자료에서 ‘똥’은 보통 [더러움]의 의미로 파악되는 듯하다. 이는 ‘똥 먹은 개 구린내 풍긴다’, ‘똥은 건드릴수록 구린내만 풍긴다’와 같은 속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똥’은 ‘구린내’와 연결되며, [더러움]의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똥’은 [천함]의 의미도 내포하는데, 이 또한 속담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똥 누고 개 불러대듯 한다’와 같은 속담은 그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이때 ‘똥’은 ‘개’와 상통하며, [천함]의 의미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똥 누는 일’에 부르는 대상이 ‘개’이며, 이때 ‘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하찮은 존재이므로, ‘똥’은 [천함]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⁶⁾

3) 국어학계에서는 국어 생활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언간 자료를 꼽고 있다. 언간 자료가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백두현 2010, 백낙천 2007 등). 하지만 언간 자료는 아직 코퍼스 구축한 것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 발표문에서는 활용하지 못하였다. 차후 연구 과정에서 언간 자료의 예문을 보태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물결 21>은 ‘corpus.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고유어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자료의 제약에 기인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현대 자료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똥의 의미는 국어사 자료에서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15세기의 불경 언해 자료들에서 보이는 몇몇 예를 가져와 본다.

- (2) 가. 또 다른 나래 窓에서 바라니 아드리 모미 시드러 여위오 똥 문지 무더 더럽거늘(又以他日, 於窗牖中遙見子身, 羸瘦憔悴, 糞土塵盆, 污穢不淨。) <月印釋譜 13:21b>
 나. 똥 흘기 뜰글 무더 더러워 조티 모흔 들 머리셔 보고(糞土 | 塵盆 ㅎ야 汗穢不淨 ㅎ 들) <법화경언해 2:209b>
 다. 고름과 피와 똥 오줌과 雜 더러운 거시 ㄱ독 ㅎ니(膿血便利雜穢充遍 ㅎ니) <法華經諺解 2:105b>
 라. 똥오줌내 나눈 짜해 조티 모흔 거시 흘러 넘뵈거든 ㅁ똥구우리 여러 가짓 벌에 그 우희 모드며(尿臭處에 不淨이 流溢거든 蜚蠊諸蟲이 而集其上 ㅎ며) <법화경언해 2:110a>
 마. 一切法에 거츠리 感染을 니르와다 種種 룡담 議論을 갖ㄱ리 ㄱㅎ야 心地를 더러빌씨 일후미 戲論엿 똥이라(於一切法妄起感染。顛倒分別種種戲論糞汚心地。名戲論糞。) <月印釋譜 13:34b>

(2가-다)에서 ‘똥’은 ‘더럽다’라는 서술어의 논항이 된다. 따라서 (2가-다)의 ‘똥’은 [더러움]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라)의 ‘똥’도 비슷한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2라)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똥’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2가-다)의 ‘똥’과 유사한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다만 (2마)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心地’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더럽히는 사물로 ‘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가-라)와 달리, (2라)의 ‘똥’은 [더러움]의 의미와 함께, [추상성]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 여지가 있다.

더불어 15세기 불경 자료에서는 ‘똥’이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3) 가. 넷 사르미 佛說을 黃金이라 니르니도 이시며 ㅁ똥 똥이라 니르니도 잇느니라 <金剛經三家解諺解 2:41a>
 나. ㅁ똥 고기와 ㅁ똥 똥과 드러셔 닐오디 이 彌勒內院이라 ㅎ더니라 <南明集諺解 하:13b>

(3)에서 ‘똥’은 대수롭지 않은 것, 즉 [천함]의 의미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3가)의 경우, ‘佛說’을 마른 똥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곧 ‘佛說’을 대수롭지 않게 대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마른 똥’은 [천함]으로 풀이할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3나)의 ‘마른 똥’은 ‘彌勒內院’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3가)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똥’은 [천함]의 의미를 담게 된다.

이처럼 15세기 자료에서 포착되는 ‘똥’은 [더러움] 혹은 [천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 인해 불경에서 사람을 나타낼 때, ‘똥’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 (3) 사르미 모미 비록 길오 크며 ㅎ지고 ㅎ오 端正코 ㄱ하도 七寶瓶의 똥 다문 ㅎㅎ야 더러부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똥’과 관련된 속담은 총 212개이다. 그 중 48개의 속담에 ‘개’가 함께 나타나는데, ‘개’의 의미와 ‘똥’의 의미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때 ‘개’의 의미도 [천한 대상]으로 풀이된다.

물 이그디 몸호려니와(人身雖長大 肥白端正好 七寶瓶盛糞 污穢不可堪) <月印釋譜 23:44b>

(3)은 사람의 몸을 ‘똥 담은 것 같다’고 설명하는 예문이다.⁷⁾ 이러한 예문에서는 사람을 [더러움]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더럽다’는 서술어가 문면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똥’의 의미를 바탕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여기에는 ‘사람’을 [천함]의 의미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사람이 아무리 길고, 크고, 살찌고, 깨끗해도 결국에는 ‘똥’ 담은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간의 삶이 [천함]이라는 속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15세기 언해 자료에서의 ‘똥’은 [더러움]과 [천함]이라는 의미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똥’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똥’의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여러 역사 자료에서 ‘똥’을 활용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활용 방법은 일종의 극단적인 수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 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똥’의 파생된 의미와 쓰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2 형벌과 증명의 수단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중세 한국어의 ‘똥’은 [더러움]과 [천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중 [더러움]이라는 이미지는 ‘똥’의 대표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와 맞물려서 ‘똥’이 가진 [더럽다]는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들도 중세 자료에서 엿볼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형벌’의 수단이다.

(4) 初, 忠輔與其子承祐, 以私憾, 執前少監黃文及其妻與學生金桓等, 縛而扶之幾死, 又以人屎汚其口頰。(처음에 곽충보가 그 아들 곽승우(郭承祐)와 더불어 사감(私憾)을 가지고 전 소감(少監) 황문(黃文)과 그 아내, 그리고 학생 김환(金桓) 등을 잡아다 묶어 놓고 때려서 거의 죽게 하고, 또 사람의 똥을 입과 볼에 발랐다.) <정종실록 정종 1년 6월 15일 기사>

(4)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로 ‘똥’이 가진 [더러움]이라는 의미를 ‘형벌’에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4)는 ‘똥’을 얼굴에 발라서 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형벌에서는 ‘똥’의 [더러움]이라는 의미를 형벌을 받는 사람이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오감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중세 사람들이 ‘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똥’을 형벌에 사용하는 장면은 언해 자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언해 자료는 일종의 교육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예시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똥’은 형벌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7) 현대에도 사람을 비하할 때, ‘똥 만드는 기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대적인 맥락과 함께 (3)의 예문을 이해하면 ‘사람’에 대한 비하가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다.

(5) 가. 醫員이 날오디 病을 아로려 커든 糞이 돌며 攄물 맛보라 제 아버 糞 즈치더니 눈다마다 머거 보니(醫云 欲知差劇 但嘗糞話苦 易泄痢 黔婁輒取嘗之) <三綱行實圖 孝子圖 21b>

나. 겨집 王氏 날오디 나눈 드로니 糞곳 쓰면 痘허리라 亨는다 머거 보니(王曰 吾聞病者糞 苦則愈 乃嘗其糞 頗甘 王色愈憂) <三綱行實圖 烈女圖 26a>

다. "全羅道 泰仁縣人朴由義, 其父病劇, 嘗糞侍疾不懈, 及父歿, 擔土成墳, 廬墓三年, 日夜泣血(전라도 태인현(泰仁縣) 사람 박유의(朴由義)가 그 아버지의 병이 위급하매 糞을 맛보고 시탕(侍湯)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죽자 흙을 저다가 봉분을 만들고 3년을 시묘하고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렸사오니, 청하건대,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고, 인하여 관직을 제수하소서.) <조선왕조실록 세종 22년 4월 8일>

(5)의 예문들에서 공통된 의미는 바로 ‘똥’을 시음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똥’을 먹어보는 행위를 통해 해당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孝子’이고 ‘烈女’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똥’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재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재료가 된 이유는 ‘똥’이 가진 [더러움]이라는 의미에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더러움]의 상징인 ‘똥’을 먹음으로써 자신이 ‘孝’와 ‘烈’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또한 ‘똥’의 의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더러움]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래 ‘똥’을 먹어보는 행위는 진료의 목적이 아니었나 한다.

(6) "全羅道 泰仁縣人朴由義, 其父病劇, 嘗糞侍疾不懈, 及父歿, 擔土成墳, 廬墓三年, 日夜泣血(전라도 태인현(泰仁縣) 사람 박유의(朴由義)가 그 아버지의 병이 위급하매 糞을 맛보고 시탕(侍湯)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죽자 흙을 저다가 봉분을 만들고 3년을 시묘하고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렸사오니, 청하건대,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고, 인하여 관직을 제수하소서.) <조선왕조실록 세종 22년 4월 8일>

(6)에서 ‘박유의’가 아버지의 糞을 먹은 것은 효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병을 진단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똥’에 대한 고정관념을 매우 확고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는 ‘똥’이라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먹었다는 행위에만 매몰되게 된다. 따라서 ‘박유의’가 취한 행동의 본질은 옳고, ‘똥’을 먹었다는 것에만 천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 ‘똥’을 먹는 행위가 ‘孝’와 ‘烈’을 드러내는 징표로 변질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똥’에 박힌 고정관념이 매우 확고하여 행위의 본질까지도 잊게 만든다는 점을 함께 지적해두려고 한다. 이는 곧 ‘똥’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매우 확고하며 강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세 사람들은 ‘똥’을 더러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똥’을 바탕으로 한 형벌도 만들어냈고, 또한 ‘똥’을 통해 자신의 효와 열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똥’이 꼭 이러한 수단으로만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 효와 열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전에는 ‘똥’의 유용성에 대해 먼저 고민하는 단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 하여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2.3 생활에 필요한 재료

앞 절에서 ‘똥’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각했을 때, ‘똥’은 무조건 금기시해야할 대상, 더러움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국어사 자료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7) 가. 긋것 티닐 고토디 돌기 쫘 힌 것 대초만과 삼 혼 즈과 두 가지를 술 닐굽 되로 글혀
선 되를 取하야 더우닐 머그면 아니한 스시에 쫘 나느니(治鬼擊 雞屎白如棗大青花麻
一把即常用麻右二味以酒七升煮 取三升熱服) <救急方諺解 上 22b>
- 나. 과긋른 모딘 독 마자 비 즈르논 듯 알파 견디디 몬하야 토하며 즈치며 어즐하며 더위
며여 답답하고 갈하야 신씩를 몬 초리거든 물 쫘을 3라 뿔와 혼디 저서 바다 3기
론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豆하리라(絞腸沙腹痛嘔吐泄瀉及霍亂中暑煩渴不省人事 馬糞
化下即愈) <구급간이방 2:47a>
- 다. 과긋리 주거 네 활기 몬 쓰고 대쇼변을 ㅼ거든 물 쫘 혼 되를 물 서마래 글혀 두 마리
ㅼ외어든 ㅅ기라(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馬屎一升水三斗煮取二斗以洗之) <救急簡易方
1:43b>
- 라. 山中엿 남긋 버스세 毒 마즈닐 고토디 사르미 쫘汁 혼 되를 머그면 豆하리라(治山中樹
菌中毒 人屎汁服一升良) <救急方諺解 下 47b>
- 마. ㅄ스미 답답하고 미쳐 긋것 ㅼ어든 사르미 쫘 ㅼ즌 즈을 두서 ㅅ만 머기라(心煩狂見鬼者
絞人屎汁飲數合) <救急簡易方 1:108b>
- 바. 비얌 ㅼ어든 사르미 쫘을 두티이 ㅼ르코 ㅅ거스로 ㅼ 두면 즉재 독이 업스리라蛇嚙 人
屎厚塗帛裹即消 <救急簡易方 6:49b>

위의 예문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똥’은 약재로도 사용되었다. 약재로 사용되는 ‘똥’은 사람의 똥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각종 가축 혹은 야생동물의 똥 또한 약재로 활용되었다.⁸⁾ 의료 시설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의 ‘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이면서 상처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⁹⁾

이처럼 ‘똥’은 [더러움]이라는 의미가 강하였으나, 생활 깊숙한 곳에서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약재, 치료제로서의 쓰임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똥’이 다르게 쓰이는 양상이 국어사 자료에서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 (8) 가. 하늘도 칩다 주서 온 물쫘 가져다가 불 무희워 손 발 데워지라(天氣寒冷 拾來的糞將
來 焔着些火熱手腳) <翻譯老乞大 下 35b>
- 나. 禁各里燒馬矢, 亦禁治匠, 非時用火(각 마을에서 말 똥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대장장이[治匠]가 때 아니게 불을 쓰는 것을 금지할 것)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 2권
1450년 6월 2일>

8) (7가-다)에서는 ‘동물의 똥’이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7라-바)에서는 ‘사람의 똥’이 활용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9) 이에 대해서는 15세기 자료인 <救急簡易方>, <救急方諺解> 그리고 16세기 자료인 <우마양저역역치료방>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똥’은 일종의 연료로서 쓰이기도 하였다. 다만 연료로 쓰이는 ‘똥’은 초식동물의 ‘똥’으로 한정되었다. 육식동물이나 사람의 똥과 달리, 초식동물의 ‘똥’이 불에 잘 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료로서 쓰이는 ‘똥’은 나무나 그 외에 잘 타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똥’을 단순히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똥’의 성질을 이용하여 생활에 잘 활용하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더불어 ‘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현대의 여러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소똥으로 작동하는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¹⁰⁾

이처럼 ‘똥’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대상이었지만, 약재나 연료로도 사용되어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똥’의 의미와 쓰임은 현대 한국어 자료에서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의미와 쓰임이 변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현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똥’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 좀더 깊이 다뤄볼 것이다.

3. 현대 자료에서 확인되는 ‘똥’의 모습

이 장에서는 현대 한국어 자료에서 나타나는 ‘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굳이 한국어 자료로 한정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똥’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 ‘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는 다루지 못한다. 따라서 일단 한국어 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의 발전과 맞물려 ‘똥’에 대한 의미와 쓰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최신식의 배변 처리 시설이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으므로, 이전의 양상과는 다른 ‘똥’의 의미나 쓰임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이 발표문에서는 코퍼스 자료를 통해 그 양상을 조금씩 추론해보려고 한다.

3.1 ‘똥’과 공기하는 단어들

현대 한국어에서 ‘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똥’과 공기하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한다. 공기하는 빈도가 높은 공기어일수록 해당 단어와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발표문에서는 ‘똥’의 공기어를 통해서 현대의 우리가 ‘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발표문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결 21> 코퍼스를 활용하려고 한다. <물결 21>에서는 빈도 및 공기어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똥’과 공기하는 단어의 목록 20개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순위	공기어	t-score	순위	공기어	t-score
1	강아지	27.482	11	돼지	13.357
2	아이	16.228	12	그림	12.752
3	오줌	16.001	13	동물	12.512

10) 나무위키(<https://namu.wiki/>)에 기록된 ‘똥’ 항목을 살펴보면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똥’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4	냄새	15.014	14	꽃	11.459
5	사람	14.532	15	머리	11.854
6	어린이	14.255	16	작가	10.405
7	이야기	14.657	17	거름	11.071
8	동화	14.266	18	집	10.531
9	밥	13.85	19	말	9.934
10	책	12.876	20	속	10.08

위의 표는 <물결 21>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2000-2013년 동안 ‘똥’과 공기하는 단어들을 t-score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단어 목록은 ‘똥’의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가 ‘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똥’의 의미를 파악해보려고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어사 및 역사 자료 속의 ‘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한다.

3.2 ‘똥’의 전승된 의미 1. [더러움]

앞 장에서 우리는 ‘똥’의 전형적인 의미로 [더러움]과 [천함]을 들었고,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똥’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물론 현대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기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주로 상위 3위에 있는 ‘오줌’과 ‘똥’이 공기할 때,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 (9) 가. 자연스러운 배설물이라면 어느정도 견딜지 모르지만 변비와 설사에 각종 화학 조미료와 인스턴트 식품으로 뒤섞인 똥, 오줌이라면 언제까지 청계천이 참아줄 수 있을까? <한겨레신문 2000.01.20.일 기사>
- 나. 인간의 원초적 산물인 똥, 오줌을 처리하는 화장실, 먹고살기에 바빠서, 더럽고 지저분해서 등 이유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화장실이 시민단체의 손에 의해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 <중앙일보 2000.4.21. 기사>
- 다. 밥을 주려고 우리에게 들어가서 고놈을 돌아 들어가는데 나를 머리로 받는거야. 그런데 어떻게 재수가 없을라고 내가 넘어졌잖나. 지가 싼 똥이나 오줌 속에 자빠졌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나도 참았어야 했는데 못 참고 허벅지를 한 대 때렸지. <중앙일보 2000.6.5.>
- 라. 바퀴벌레, 쥐, 구더기, 똥, 오줌, 트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역겹게 느끼는 것들이다. <한겨레신문 2000.9.18. 기사>
- 마. 백남용 신부는 "노조원들이 아무데나 배설한 똥·오줌으로 악취가 심했고, 심지어 마당에 설치한 구유에까지 방뇨하다 붙잡힌 농성자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선일보 2000.12.23. 기사>

(9)의 예로 확인할 수 있듯이, ‘똥’이 ‘오줌’과 함께 다니는 경우, [더러움]의 의미를 전달하는 예문이 다수 포착된다.¹¹⁾ 언중들이 같은 배설물로서 ‘똥’과 ‘오줌’의 공통된 의미를 [더러움]으

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더불어 상위 4위에 올라 있는 ‘냄새’와 ‘똥’이 공기하는 경우에도 [더러움]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¹²⁾

(10) 가. 이러다간 온 나라가 똥 냄새로 진동할 처지였죠. <동아일보 2001.3.15. 기사>

나. 햄스터 지린내와 청거북 똥냄새는 참 지독하다. <조선일보 2001.9.19. 기사>

다. 가령 불순한 광학이성질체를 원료로 쓴 향수는 자칫 똥냄새로 변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0.4.10. 기사>

라.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게 똥냄새와 밥냄새와 사람냄새가 섞인 귀귀한 냄새였지요. <한겨레신문 2002.7.23. 기사>

마. 조광조의 답변. "똥냄새가 납니다. 똥은 밭에 뿌려져야 거름으로나 쓸 수 있지요. 다 버리십시오. 봉당으론 안됩니다." <조선일보 2001.1.30. 기사>

(10)에서 알 수 있듯이, ‘냄새’가 ‘똥’과 공기하는 경우는 보통 ‘똥냄새’로 실현된다. 즉, ‘똥’과 ‘오줌’같이 각각의 한 단어로서의 위상을 갖기보다는 일종의 단어 연속 구성으로서의 ‘똥냄새’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¹³⁾ 그리고 이러한 ‘똥냄새’는 주로 더럽거나 역한 냄새로 취급되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어에서 ‘냄새’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을 듯하다.¹⁴⁾

이처럼 현대 자료에서도 ‘똥’은 [더러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여러 단어들과 공기하는 양상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상위 공기어인 ‘오줌’과 ‘냄새’와의 공기 양상을 통해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오줌’이나 ‘냄새’ 외에 다른 단어들과 공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더러움]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근차근 논의할 것이다.

3.3 ‘똥’의 전승된 의미 2. 생활에 필요한 재료

앞 장에서 우리는 역사 자료를 통해 ‘똥’이 생활에 필요한 약재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연료로서의 쓰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 ‘똥’은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었다고 파악하였다. 현대 자료에서도 ‘똥’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료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그 쓰임이 다소 변한다. 주로 ‘거름’이나 ‘비료’로서의 쓰임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똥’과 ‘돼지’의 공기 양상이다.

(11) 가. 경남 김해시 양돈영농조합 OO 조합장은 인터넷을 통해 '돼지똥' 수백억원 어치를 수출한 양돈업자다. <중앙일보 2000.3.16. 기사>

11) 물론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며, ‘똥’과 ‘오줌’의 배설행위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파악하는 예문도 있었다(예: 똥이나 오줌 같은 것은 자연계 순환이 가능한 것이어서 시골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0.02.17. 기사>

12)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며, 푸근한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문도 있다. 예컨대, ‘시골 똥 냄새가 좋아’ <조선일보 2000. 4.10>와 같은 예문을 들 수 있겠다.

13) 현재 한국어 사전에서는 ‘똥냄새’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

14) 네이버 지식백과의 ‘다른 말과 틀린 말’에서는 ‘냄새’는 부정적인 것이건 긍정적인 기운이건 온갖 것을 다 포함하지만, ‘내음’은 긍정적인 기운에만 사용한다고 한다(강희숙 2016 참고).

나. 94년말 김해시 생림면 일대 양돈농가 32곳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돼지똥 비료공장을 만들었다. <중앙일보 2000.3.16. 기사>

다. '돼지똥'도 돈되네...비료원료로 수백억 수출 <중앙일보 2000.3.16. 기사>

'돼지똥' 또한 '똥냄새'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단어 연속 구성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기 양상은 '돼지'와 '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물들의 '똥'이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2) 가. 호랑이 똥이 멧돼지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각 동물원에 호랑이 똥을 달라는 주문이 몰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5.11.19. 기사>

나. 밭을 고르고 난 뒤에 농작물 거름으로 닭똥을 구하였다. <조선일보 2000.11.4. 기사>

다. 부친이 건강해 매일같이 손잡고 밭을 드나들며 "토마토가 든실이 잘자랐네" "어머니가 준 닭똥 거름이 좋았나 보네" "오늘 밤은 호박잎에 밥 먹을까" "호박잎은 건드리지 마라, 열매가 든실치 못하게 된다" <중앙일보 2002.8.19. 기사>

라. 100% 우리 소유의 포도밭에서 재배하고, 인공비료 대신 우리 종마장에서 기르는 말똥 거름을 쓰는 친환경 제품이에요. <중앙일보 2006.5.12. 기사>

(12)는 여러 동물의 '똥'이 현재 비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11)과 마찬가지로, '소', '말', '닭'의 '똥' 또한 아직도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2)는 다소 특이하다. (12)는 '멧돼지'를 몰아내기 위해 멧돼지의 천적인 '호랑이똥'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동물의 '똥'을 인간 생활을 위해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동물의 '똥' 또한 생활을 위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똥'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료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어사 자료나 역사 자료에서 파악했던 것처럼 연료, 약재로서의 의미는 점차 소실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국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똥'보다 효율이 높은 연료, '똥'보다 치료 효과가 좋은 약재를 과학기술을 통해 찾아냈으므로, 굳이 '똥'을 연료, 약재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대 자료에서는 '똥'을 다소 색다르게 활용하는 양상도 포착된다. 이는 다음 절에서 확인해볼 것이다.

3.4 똥의 새로운 의미: [친근함] ⇒ [원초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똥'이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대에서는 '똥'이 가지는 이러한 [친근함]의 의미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현대의 '똥'은 [친근함]의 의미로 더욱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기어들은 '아이', '어린이', '이야기', '동화'이다. 먼저 '아이'나 '어린이'와 공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다.

(13) 가. '똥'은 아이들에게 참으로 친근하면서도 재미있게 다가서는 이야깃거리다. <조선일보 2000.5.13. 기사>

나. 똥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은 뭐가 좋은 지 웃는다. <조선일보 2000.7.8. 기사>

다. '누가 내 머리에 똥 싸' '강아지 똥' 등의 '똥' 시리즈는 어린이들에게 '똥' 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 '목욕은 즐거워' 는 목욕 기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0.7.20. 기사>

라. 요즘 도회지 아이들에게 교육 효과 만점인 것이 똥 얘기지만, 실은 우리 문학사에서 똥을 가장 고약하게 묘사한 작가가 있다. <중앙일보 2001.3.3.기사>

마. 우리가 그랬듯이 그맘때 '방귀'나 '똥' 소리 하지 않고 자라나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2001. 4.10. 기사>

바. 기획 초기에 방귀가 너무 선정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방송사 내부에서 나왔지만 방귀.똥 같은 생리작용에 아이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렵게 설득했다. <중앙일보 2001. 4.6. 기사>

(13)에 제시된 예문을 정리하면, '아이' 혹은 '어린이'는 '똥'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아이나 어린이가 '똥'에 왜 관심이 많은지 필자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똥'이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어린이'나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먹는 훈련'과 '배변훈련'을 하고 태어난다. 이는 아기의 생존에 있어서 '먹는 것'과 '배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아기를 육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 또한 '먹는 것'과 '배변'이며, 아기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어린이'나 '아이'는 '똥'을 친근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똥' 이야기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한다.

더불어 아이나 어린이가 갖는 '똥'에 대한 관심은 [원초성]으로서의 회귀일지도 모른다. 즉, 아이나 어린이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던 배변으로 돌아가서 원초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귀는 사회적인 금기를 깨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아이나 어린이는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즉, 아이나 어린이는 '똥' 이야기를 통해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동시에, '똥'이라는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쾌락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에는 '아이'나 '어린이'가 갖는 '똥'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나 '동화', '책'과 공기하는 '똥'의 양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14) 가. 이런 책을 골라라=일본 엄마들이 직접 쓴 책으로 '아기코끼리의 똥' 시리즈(지경사)가 있다. <조선일보 2000.1.14. 기사>

나. 주먹만한 내 똥(한국글쓰기연구회 엮음.보리.6천5백원), 고민도 많아지고 세상 보는 눈도 부쩍 자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의 글모음. 살을 빼려고 온갖 애를 쓰는가 하면 비둘기를 보고 하늘을 훨훨 날고 싶은 아이들. 읽는 이로 하여금 '나도 쓰고 싶다' 는 마음을 들게 해준다. <중앙일보 2000.1.6. 기사>

다. 할인대상도서는 권정생의 '강아지똥' 등 어린이전문서점이 자체 선정한 베스트셀러 100선이며 할인율은 정가의 15~20%. <동아일보 2000.2.26. 기사>

라. 며칠 전 집어든 이 책도 앉은 자리에서 술술, 재미있게 읽히는 똥 이야기다. <조선일보 2000.5.13. 기사>

마. 할머니가 애지중지 하던 똥에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된장국으로 끓여먹던 똥 이야

기까지 똥 이야기가 참으로 정겹다. <조선일보 2000.5.13. 기사>

바. 똥덩이가 좋아요 여왕이 세우는 개미나라;이상배 글·백명식 그림 파랑새 어린이;"똥덩이 송편 한번 먹어볼래?";신비한 동·식물의 세계 그림·이야기 통해 관찰 <조선일보 2000. 7.8. 기사>

(14)를 통해 우리는 책이나 이야기의 제목에 '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이'나 '어린이'가 '똥'을 매우 재밌어한다는 것을 파악한 '어른'들이 '아이'나 '어린이'에게 책이나 이야기를 팔기 위해 '똥'을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는 일종의 금기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우리의 원초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더 큰 상업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똥'이 이제는 더 이상 금기의 대상, 더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유쾌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더 큰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똥'의 쓰임은 기존의 역사 자료, 국어사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재창조한 '똥'의 새로운 쓰임인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 토론 후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강희숙(2016), 『다른 말과 틀린 말』, 역락.
- 고영근(199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 구본관(1996), '중세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56-113.
- 김혜영 강범모(2013), 신문 사설에 나타나는 어휘 사용의 추이, 『텍스트언어학』 3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22.
- 남기심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박재연(2003), 『老乞大·朴通事 원문·언해 비교 자료』,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 백낙천(2007), 국어 생활사 자료로서의 인간의 특징,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화학회, 183-198.
- 백두현(2010), 어문생활사로 본 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방법,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41-72.
- 이현희(1994), 『노걸대언해류 대비 및 현대어역』,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최재웅 이도길(2014), 물결 21 코퍼스: 공유와 확산: 물결 21 코퍼스: 공개 웹 자원 및 활용도 구, 『민족문화연구』 6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23.
- 홍정하(2014), 물결 21 코퍼스: 추세의 유사도를 이용한 중심어와 관련어의 상관성 연구, 『민족문화연구』 6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5-58.
- 황선엽(2016), 중세 근대 속격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3, 국어사학회, 71-95.

<사전/자료류>

- 나무위키: namu.wiki.
-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 물결 21: corpus.korea.ac.kr.
- 우리말샘: <https://dict.naver.com/>
- 박재연 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학고방.
- 박재연·이현희 외(2016),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연구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큰사전 -옛말과 이두-』, 어문각.
- 황선엽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똥과 시적 상상력

오성호(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1. 머리말

똥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적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식생활의 변화로 가축 사육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똥만이 아니라 가축의 똥까지 이런 위협에 가담하고 있다. 최첨단 정화 기술과 시설은 물론이고 자연 자체의 자정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똥이 배출되고 은밀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똥을 퇴비화하거나 똥에서 바이오 메탄가스를 추출하려는 노력 또한 도처에서 좌절을 겪고 있다. 음식이나 사료에 포함된 항생물질 때문에 똥을 분해하는 미생물이나 곤충이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초식동물의 똥에 기대 살아가는 소똥구리를 복원하려는 환경부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¹⁾. 결국 똥을 생태적 순환과정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면 그것을 다시금 그 순환 과정으로 되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과 통로를 찾지 못한 것이 문제를 날로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셈이다.

사이언스 월든의 기획은 똥으로 인한 환경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 똥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인식, 똥을 무리 없이 생태적 순환 과정으로 되돌리는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태화장실의 개발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이언스 월든의 기획에서 정말로 돋보이는 것은 이른바 똥의 자원적 가치를 복원하는 한편, 이른바 ‘똥본위화폐’를 발행하고, 보급함으로써 ‘착한 자본’ 조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이 ‘똥본위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자칫하면 한낱 행사성 기획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생태변소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획이 실현될 수 있다면 사회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해진 거대자본의 독주와 횡포를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제 2의 보이지 않는 손 : 2nd Invisible Hands’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똥본위 화폐’가 과연 ‘착한 자본’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선불리 낙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 희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언스 월든 기획이 단순히 환경학자나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자, 그리고 이런 기획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인문학자나 예술가들까지 망라한 종합적이고 ‘간학제적인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똥의 자원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선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이 똥을 생태적으로 처리하는 기술과 시설의 도입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

1) 모두 38종에 달하는 국내의 소똥구리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곡물사료의 사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 풀 대신 항생제가 투입된 곡물사료를 먹고 쉰 소똥에는 집을 지을 수도, 알을 낳을 수도, 애벌레를 먹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Channel A 뉴스(2017.12.27.)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경북 영양군에 ‘국립 멸종위기 종 복원센터’를 짓기로 하면서 살아있는 소똥구리 한 마리 당 10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골고를 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똥구리를 찾을 수 없어 몽골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진정한 걸림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해온 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그 때문에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성과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닌, 그리고 실제 생활의 체험과 감각에서 비롯된 이 감성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인식보다 감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이언스 월든 기획에 과학이나 기술과는 거리가 먼 인문학이나 예술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과학적 인식과 그에 기반한 기술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려면 무엇보다 감성과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거니와, 이 부분은 실상 과학이나 기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문학과 예술이 감당해야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인문학은 인간이 똥과 관계 맺는 방식, 똥 처리의 역사, 똥에 대한 감성과 인식과 태도의 변화 과정 등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그동안 은폐되거나 부정되어 왔던 똥을 우리 삶과 의식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제화함으로써 이 기획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문학과 예술 양자와 모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문학은 과학적 인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똥에 대한 대중의 감성과 태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문학, 특히 한국 근대시 속에서 똥이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볼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똥이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똥과 똥 누기의 긍정적 의미를 캐내려는 최근의 한국 시들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어서 똥을 누는 장소, 즉 변소가 시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형상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 글의 주된 관심사다. 이런 연구가 똥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나 그것의 사회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근대 이후 강제로 우리 기억에서 추방되었던 똥의 긍정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똥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가야 할 먼 길을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²⁾. 문제의 발견과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성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되는 시들은 대부분 1990년 이후의 것들이고 그 작자 또한 제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안도현, 정호승 등의 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시인에 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작품의 성취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문학과 똥의 표상

의외에도 현실에서는 똥이라면 우선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나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일체의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진지하게 똥과 오줌에 대해 접근하는 학자도 있고, 똥의 처리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투하는 기술자도 있으며, 변태적인 것으로 평가받기는 하지만 똥과 오줌에 대한 애

2) 젠킨스는 미래의 변기가 “분뇨를 분출하는 장치가 아니라 (퇴비공장으로 보내기 위해서)수집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죠셉 젠킨스, 이재성 옮김, 인분 핸드북, 똥살리기 땅살리기, 녹색평론, 2004)117-130쪽.

완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으며, 똥을 소재로 활용하거나 똥에 유별난 애착과 관심을 보여주는 문학 작품도 있다. 똥에 대한 이런 다양한 관심과 표현 전체를 통틀어 스카톨로지(scatology)라고 부른다³⁾. 이 중 똥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제외한 다른 두 가지는 모두 똥의 부정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똥의 긍정적 가치—그 하나는 지력(地力)을 복돋아주는 힘과 관련된 것이고⁴⁾ 다른 하나는 똥의 약리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이런 지식에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보통 사람의 일상적 감각 속에서 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주거 환경, 생활 방식, 그리고 위생의식과 결합하면서 똥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지식들을 억압하고 똥을 생태적으로 재활용하려는 모든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똥이 이처럼 부정 일변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에 일어난 전면적인 삶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⁵⁾. 사회적 분업의 전면화, 농경과 분리된 새로운 도시적 삶의 양식 출현으로 인구의 밀집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을 뿐 아니라 주거 공간이 점차 수직적으로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똥은 바야흐로 각종 오염과 질병의 온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근대로 진입하면서 서구로부터 전해진 의학지식과 위생관념에 기초한 삶의 규율화가 본격화되면서 똥은 오로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비료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⁶⁾ 똥은 거름으로도 이용되지 못하고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어 우리 삶의 바깥으로 밀려나 버렸다. ‘녹색혁명’의 환상 뒤에서 은밀하게 손잡은 자본과 권력이 똥을 배제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똥과 똥 냄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모두 근대의 산물, 즉 근대 위생담론이나 그에 기반을 둔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만은 없다. 똥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동서양에서 공히,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적인 위생 관념이 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고 똥을 우리의 삶에 배제하고 은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3) 분변학이 의학의 한 분야가 된 것은 19세기 이후였다고 한다. 캐롤라인 흡즈, 『똥』, 황금나침반, 2007. 14쪽.

한편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EB%B6%84%EB%B3%80%ED%95%99>)에 따르면 이 스카톨로지란 말은 이 세 가지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를 굳이 구분한다면 분변학, 분변취미(분변음욕증), 분변문학 정도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4) 똥의 양가성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 가운데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똥으로 배출되는 것이 40 퍼센트 이상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 영양분 때문에 똥을 물에 투기하면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을 가져온다. 반대로 똥은 그 자체로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부숙시킬 경우에는 지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5) 서구에서 똥을 포함한 인체의 부산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청교도가 주도적인 위치로 급부상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로즈 조지, (하인해 울김), 『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지하게, 카라칼, 2019. 23-27쪽. 이런 부정적 인식은 세균의 발견 등 근대과학, 의학의 발달과 결합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6) 일제 강점기의 흥남질소비료공장(1927) 건립은 그 계기였다. 일본의 공업화에 필요한 값싼 쌀의 생산을 위해서 화학비료의 사용을 장려하기도 했지만 화학비료 생산을 전담한 자본가, 화학비료로 인한 증산 효과에 매료된 지주들에 의해서 화학비료 사용의 강제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 충주비료공장(1957년 이래 1973년 제6비료공장 설립까지 줄곧 확대됨)과 남해화학(제 7비료공장; 1974년 설립, 1980년 요소공장 준공) 등이 설립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증설, 확장된 것은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한 화학비료 수요에 따른 것이다. 식량 생산이 현저하게 위축되었고 산림의 황폐화로 인해 퇴비를 만드는 일이 녹록치 않았던 시절에는 화학비료 사용이 증산을 위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때문이다. 특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줌으로써 집권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녹색혁명’의 환상이 유포되면서 식량 증산을 위한 금비 사용의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화학비료 사용 증가=식량생산량의 증가”라는 등식을 통해 ‘조국근대화’를 실증하려고 했던 것이다.

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위생담론의 영향은 단지 똥의 부정적인 속성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그것을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밀어버린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⁷⁾. 그리고 위생 담론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가 가져온 거대한 삶의 양식 변화, 즉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하게 되고 주거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똥의 생태적 순환이 불가능해진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관을 고려하면 문학과 똥이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근대가 낳은 편견일 수 있지만 문학과 똥은 대개의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신적인 것과 가까운 것인 반면 똥은 더럽고 불결하고 머리에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과는 고상한 예술이기 전에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문학에서 똥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분변문학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문학에서 똥이 자주 중요한 소재로 활용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동화나 동시 같은 아동문학에서는 아동들의 발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소재로 똥을 곧잘 활용하고 있다⁸⁾. 또 동화나 소설 등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일군 농부의 성격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개똥을 주워 와서 자기집 퇴비더미에 던져놓는다는가. 밖에 나갔다가도 똥오줌만큼은 꼭 집에 와서 누든가 하는 식으로 퇴비 생산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문학에서 똥은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그려진 경우가 더 많다고 보인다. 이 경우 똥은 현실에서 대항하거나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적을 공격하는 무기, 물론 그 적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하지만 적을 욕보이기 위한 무기로 활용되었다. 똥의 부정성, 즉 악취와 더러움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똥은 이중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 하나는 고상한 체하거나 선량과 정직을 가장하고 있는 적이 똥이나 다름 바 없는 더럽고 부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효과, 다른 하나는 더러운 똥을 뒤집어씌움으로써 자존망대의 환상에 빠져 있는 적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을 왜곡, 희화하거나 더러운 것을 덮어씌워서 웃음을 유발케 하는 작품을 풍자(satire)라고 부르거나 이런 풍자적인 작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써져 왔다.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 같은 작품, 혹은 중세 시대 프랑스의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같은 작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요컨대 문학작품 속에서 똥은 대부분 억압적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혹은 통상 고상하고 우아한 것, 혹은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존재의 부정적 속성을 폭로해서 그것이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일깨우는, 말하자면 전복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똥의 부정적 속성을 이용해서 지배층의 도덕적 타락상과 위선을 풍자한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연암 박지원의 「호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입버릇처럼 예와 도덕을 내세우면서도 은밀하게 유부녀와 정을 통하는 유학자의 도덕적 타락과 위선을 폭로, 야유하기 위해서 북관 선생을 똥구덩이 속에 빠뜨린 것이다. 이처럼 문학 작품에서 똥은 대부분 현실에서는 도저히 대적하기 어려운 강자를 공격하는 약자의 무기-적의 부정성을 폭로하거나 야유와 조롱, 그리고 모욕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물론 그것은 치명상을 가하기보다는 침을 뱉는 것이나 비슷하게 대상에게 모욕을 가하고 신비화되어 있거나 신성시되는 대상의 부정성을 폭로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7) 냄새의 주범은 인돌(indol)과 황화수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인돌은 최고급향수에서 사용된다고 한다.(출전 명시)

8) 인터넷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똥’을 검색하면 수백 종의 아동도서 목록이 뜬다.

고상한 것의 비루함이 폭로되는 데서 오는 통쾌감이 그 미학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꺾을 수 없는 강대한 적에게 똥을 뒤집어 씌워 모욕을 가하는 것⁹⁾으로 화풀이하는 것은, 문학적 상상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현실에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현실의 일면이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똥은 전쟁에서 종종 이용되어 왔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에게 똥을 퍼붓는 것은 고대 전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었던지와 임진왜란 때 해주산성 전투에서는 그 효율성을 좀 더 높인 분포(糞砲)가 사용되기도 했다.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적이 승리를 개운하게 즐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다분히 유아적인 저항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쟁터에서 똥이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 경우도 없지는 않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미군에 비하면 초라한 무장 밖에 할 수 없었던 베트남인들이 똥을 바르고 그것을 함정 안에 거꾸로 세워두는 함정을 이용한 것¹⁰⁾이 그런 예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똥이 현실에서 약자의 무기로 활용된 예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가령 국민적 분노를 산 정치인에게 똥을 우편으로 배달한다든지, 때문에 똥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똥이 강자의 위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도 없지 않다. 동원된 구사대가 나체로 파업 농성 중인 동일방직 여공들에게 똥물을 끼얹은, 1970년대의 저 유명한 동일방직 사건이 그런 경우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연구원에 대한 지도교수의 갑질에 이용된 것도 똥이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어떻게 해서든 약자를 괴롭히고 모욕감을 주려는 강자의 가학적 취미와 관련하여 똥이 이용된 경우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에서든 문학에서든 똥은 대체로 강자를 겨냥해서 사용되는 약자의 무기였다. 제한된 기간 동안 일상에서 억압된 욕망의 무제한한 분출과 일상적 질서의 전복을 허용했던 중세 유럽의 카니발에서 똥 싸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햇빛과 대중들의 시선 아래 노출되어 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정적인, 따라서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던 똥을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상상적인, 혹은 제의적인 수준에서 일상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대중들로 하여금 억압에서 벗어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해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똥은 전복적 상상력을 현재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3. 근대시와 똥의 의미변화

3-1. 똥의 부정적 의미

근대시에서 똥을 소재로 한 작품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똥이 영원한 것, 순수한 것, 고상한 것,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근대시 형성기에 고착된 시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시 장르의 특성 상 똥처럼 ‘저지분한 소재’를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렵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래서 아예 다루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그런 소재였던 셈이다. 그래서 똥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급한 시조차 찾기 어렵지만, 오장환의 「정문(旌門)」이란

9) 서양인들이 엉덩이를 까내리고 엎드려서 상대의 눈앞에 자신의 항문과 성기를 보여주는 식으로 모욕하는 것도 똥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0) 이와는 달리 미군이 똥냄새를 농축시킨 폭탄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로즈 조지, (하인해 움김), 『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지하게. (The Big Necessity): The unmentioned world of human waste and why it matters』, 카라칼, 2019. 같은 책,

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시는 봉건적 윤리와 가치의 위선-구체적으로는 열녀문으로도 일컬어지는 정문(旌門)뒤에 감추어진 양반들의 허세와 위선, 즉 가문의 위광을 영속화하기 위한을 거짓을 야유한 작품이다.

소저의 신랑은 여섯 해 아래 소저는 시집을 가서도 자위하였다. 썩군, 썩군 지껄이는 시집의 기도 했고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똥냄새를 농축시켜서 폭탄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소문 소저는 겁이 나 병든 시에미의 똥맛을 훤어보았다. 오 효부라는 소문의 펼쳐짐이여! 양반은 죄금이라도 상놈을 속여야 하고 자랑으로 누르려 한다. 소저는 열아홉, 신랑은 열네살 소저는 참지 못하여 목매이던 날 양반의 집은 삼엄하게 교통을 끊고 젊은 새댁이 독사에 물리라는 낭군을 구하려다 대신으로 죽었다는 슬픈 전설을 쏟아내었다. 이래서 생겨난 효부열녀의 정문 그들의 종친은 가문이나 변화하게 만들어보자고 정문의 광영을 붉게 푸르게 채색하였다.

오장환, 「정문」

이 시에서 거짓으로 ‘정문’을 세우기까지의 사정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이 시에서 언급된 “병든 시에미의 똥맛을 훤어보았다”라는 구절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조선 시대 왕실의 어의들은 왕의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 똥을 직접 맛보기도 했다고 하니 며느리가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기 위해 “병든 시에미의 똥맛을 훤어 보았다”는 것은 충분히 있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며느리의 이 행동은 진심과는 거리가 먼 소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의 결과다. 이런 행위는 근대적인 위생의 관점에서나 도덕적인 관점에서나 더럽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녀의 죽음을 “젊은 새댁이 독사에 물리라는 낭군을 구하려다 대신으로 죽었다”고 미화해서 황으로부터 정문을 하사받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 기득권을 누리려 한 그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아랫것”들에게 군림하려 한 집요한 지배욕과 허위의식이 며느리의 가식적 행동보다 깨끗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장환은 똥이 더럽다는 상식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상놈”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문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망설이지 않고 저지르는 양반들의 위선과 거짓이 똥, 혹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똥을 훤는 며느리의 행위보다 더 더러운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에 비하면 김지하의 당시 「분씨물어(糞氏物語)」는 똥의 부정적 속성-그 냄새와 더러움-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까발리고 급기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른다¹¹⁾. 이 당시에서 분삼촌대(糞三寸待)가 한반도 여기저기 싸갈기는 똥은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재침략을 상징하지만 그는 자신이 썩 똥에 빠져 죽는다. 이런 결말은 결국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혹은 더럽혀질 수 없는 대지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한편, 분삼촌대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통해서 일제의 재침략의 의도가 절대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상상적인 수준에서이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덮어씌움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대적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을 모욕하는 것이다¹²⁾. 이처럼 대상에게 똥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그 대상의 권위, 신성불가침성을 해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도 손상시킬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하고 신성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나’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손상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 경우 대상에 대한

11) 김란희, 「카오코스모스 시학과 김지하 당시의 구조 형성방식」, 국제어문 45집, 2009 155-156쪽

12) 이 작품은 1973년에 발표되었으나 1985년 임진택이 이를 「똥바다」라는 제목의 판소리로 개작, 발표했다.

희화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에게 덮씌워지는 똥의 양과 악취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고 왜곡된다.

김지하의 담시는 일단 똥을 문학의 중심소재로 끌어들이는 과감성에서 돋보이지만, 이런 상상력이 김지하만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똥의 부정성을 통해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하거나 대상에게 모욕을 가하는 방법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처럼 똥을 덮어씌워서 대상에게 모욕을 가하는 상상력은 사실 똥에 대해 우리가 오래 전부터 공유해온 부정적인 관념,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일상언어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가령 “똥 밟았다” “똥물에 튀탈” “뱃속(혹은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찬” 혹은 “벽에 똥칠하는” 같은 말들은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들이거나, 김지하의 담시는 이런 일상적 표현들을 시적 상상력에 증폭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실제로 작품 말미에서 분삼촌대는 자신이 싸지른 똥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똥물에 튀해”져서 죽는다. 똥으로 대상을 모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대상에 똥을 뒤집어 씌우는 상상은 그 대상을 희화화, 또는 왜소화한다. 즉, 대상의 강함이 저항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적인 크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이 똥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라면 그 대상은 언제든지 도전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러뜨릴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저항의지로 이어진다. 어쩌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대상에 ‘똥칠하기’의 문학적 상상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연속적인 과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3-2. 똥의 복권, 혹은 귀환

최근,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똥과 관련된 시적 상상력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¹⁴⁾. 원래 시와는 별 인연이 없어 보이고, 실제로도 그랬던 똥을 주제로 한 시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시적 상상력 역시 우리 삶 속에서 똥의 긍정적 가치가 발현되는 양상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변화는 물론 이런 저런 이유로 그동안 망각되었던 똥의 긍정적 가치가 새삼 부각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보인다. 말하자면 단순히 개별 시인의 관심사나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심층적인 사회문화적 변화, 혹은 그 상호작용 때문에 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다¹⁵⁾.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밀쳐둠으로써 오염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깨끗하고 세련된 문명적 삶을 살고 있다는 환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 삶의 청결을 위해서 밀쳐둔 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해진 것이다. 그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가 거시담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삶의 미세한 부분과 그 곁에 주목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

13) 근대의 위생관념은 똥이 가져다 주는 더 큰 혜택 때문에 더러움과 냄새를 감당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문화를 종식시켰다. 청결과 위생을 내세워 썩을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밀어낸 것이다. 근대 교육, 그리고 매스미디어, 행정 등은 이 과정에 힘을 보탤다. 하얀 색 도기로 만들어진 변기는 우리가 싸 똥이 곧바로 정화조로 빠져나가서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만든, 근대적 위생 관념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똥 처리 방식은 위험이 닥쳤을 때 덩불에 대가리를 틀어박는 것으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평의 행동이나 다를 바 없다.

14) 똥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선구적인 작품으로 방영웅의 분례기(67), 권정생의 강아지똥(69)을 들 수 있다. 똥이 지닌 건강한 생명력을 강조한 이들 작품은 이른바 민중문학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15) 환경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대두, 그리고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의 ‘기계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새로이 ‘시스템적 세계관’을 강조한 신과학운동의 영향(80-90년대)도 무시할 수 없다.

다. 여기에 88년 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이른바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삶의 조건을 질적인 수준에서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는 분위기가 더해졌다. 신체의 건강과 환경 문제가 결코 별개일 수 없다는 새삼스러운 자각이 등장한 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였다. 애초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막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좀 더 현실성을 갖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¹⁶⁾. 몸과 땅이 둘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동안 일방적 착취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땅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싸는 똥을 온전하게 땅으로 되돌림으로써 오염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한편 죽어가는 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그것은 똥이나 정화조의 오니(汚泥)를 땅에 묻거나 바다에 투기하는 식으로 처리해 온 관행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똥을 거름으로 만드는 전통적인 퇴비화 방법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 즉 단순한 폐기나 은폐의 대상이던 똥을 재자원화해서 삶 속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똥 누기가 감추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이라는 사실이 새삼 강조된다든지, 똥과 재, 톱밥, 낙엽을 섞어서 부숙시켜서 퇴비로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똥을 누는 생리작용과 똥을 누는 장소와 관련하여 시인들의 우리의 시적 상상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전자는 주로 똥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가족 제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한 변소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그리고 시인들은 이를 어떤 식으로 시화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4. 문명 속의 똥 누기, 그 다양한 향상

4-1. 야생의 똥 누기를 향한 꿈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똥을 싹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뭔가(동식물의 사체)를 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아닌 다른 것 타자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똥을 싹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무언가를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대상을 내 속에 끌어들이며 나를 만드는 행위, 대상의 동일성을 파괴함으로써 그것을 나에게 동화시키는 과정이다. 이 동화의 과정에서 내게 흡수되지 못한 것이 몸 밖으로 배출된 찌꺼기가 곧 똥이다. 그런 점에서 똥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인간의 인간스러움, 어쩔 수 없이 몸에 매인 존재임을 증명한다. 따라서 똥은 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밥이 내 안에서 분해되어 흡수되는 과정은 나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미처 소화,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를 체내에 쌓아두는, 다시 말해서 나를 더럽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찌꺼기는 바깥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로써 나는 정화되며, 그 비어 있는 자리에 또 다른 밥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은 종종 망각된다. 그래서 밥은 흔히 축복과 찬양의 대상이 되고 똥은 저주, 혹은 멸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더러움으로 나를 살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똥은 거룩한 것일 수 있다.

똥은 누구나 누지만, 똥의 처리는 인간다움, 혹은 인간적 품위의 유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16) 이 말은 원래 민족적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로컬푸드(logical food) 운동에서 보듯 이 말에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는 진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아기는 대개 돌이 지나고 난 뒤부터 곧바로 이른바 배변 훈련을 받는다. 프로이드가 항문기(18개월-3세)라고 명명한 이 시기의 배변 훈련을 거치면서 아기는 더 이상 기저귀를 차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똥 누는 시기(장소)를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똥을 싼 뒤처리까지 제 손으로 하게 되면서 아기는 점차 부모가 돌봄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똥 누기는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될 지극히 은밀하게 수행되어야 할 사적 행사가 된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똥을 쌀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괄약근에 대한 이런 통제 능력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 된다. 괄약근에 대한 자율적 통제의 시기는 죽기까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이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인정받기도 어렵게 된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라는 말이 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는 악담이자 저주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괄약근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특히 포디즘, 혹은 테일러 시스템(Taylor System)에 기반한 대량 생산 체계는 노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그 안에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괄약근에 대한 통제도 포함된다-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노동자가 제멋대로 생산라인에서 벗어남으로써 불시에 생산라인 전체가 중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의 신체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이다. 똥(오줌)싸는 시간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¹⁷⁾.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대형마트의 계산원들이 대개 배뇨, 배변과 관련된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괄약근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똥 누는 일과 관련하여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그 시간과 장소 또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용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똥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우선 똥을 우리 시야 밖으로 추방하고 은폐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똥이 똥으로 대접을 받을 때 이 세상 전체가 편해진다.”¹⁹⁾는 안도현의 생각도 역시 사회, 문화적 억압에서 벗어나 똥을 직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안도현이 똥을 대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²⁰⁾. 사물은 올바른 이름으로 불릴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낸다. 이 점에서 대상의 고유한 본질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올바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똥을 똥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 더러움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똥을 똥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똥을 은폐하기 위한, 혹은 똥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려는 기만, 즉 문화나 교양을 빙자한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²¹⁾. 성과 관련된 말들과 마찬가지로

17)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똥의 상태와 냄새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면 똥의 상태나 냄새에는 계급적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육류를 많이 섭취한 사람의 똥과 곡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의 똥은 냄새도 상태도 다 다르다. 도시인의 똥은 거름으로도 못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출전 제시)

18) 조선 시대 왕의 똥싸기. 왕이 똥을 쌀 때는 주변에 장막을 치고 매화틀을 들이대는 방식. 뒤처리엔 상궁이 비단수건으로 했다고 함. (출전 제시)

19) 안도현, 「똥은 똥이다」, 『사람』, 이레

20) 안도현, 「똥」, 『작고 나직한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한겨레 출판사, 2014, 95쪽).

21) 이는 부르디외가 말하는 ‘구별짓기’를 일상언어의 차원에서 실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

똥을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생활 속에서 배제하려는 사회문화적 억압이 똥을 똥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 색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줄 때라야 위생의 관점에서, 혹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혹은 근대적 에티켓의 관점에서 비존재이자 앵젝트(abject)로 취급되어 왔던 똥은 비로소 지각 가능한 오브젝트로²²⁾, 혹은 반성적 성찰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온전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안도현이 똥을 똥으로 부르지 않는 시는 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똥에 대한 예의’를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³⁾. 안도현은 물론 이 예의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그의 시²⁴⁾를 약간 변형시켜 보면 충분히 그가 말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똥 덩어리 함부로 더럽다고 하지 마라/너는 한번이라도 누구에게 따신 밥인 적 있었느냐”. 그가 생각한 ‘똥에 대한 예의’는 ‘연탄재’에 대한 예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안도현에게 연탄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그 누추하고 불품없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도덕적 위엄을 지닌 존재였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불사르고 남은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똥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지만 스스로를 부정함으로써 누군가의 주린 배를 채워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 준 밥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똥은 연탄재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도덕적 위엄을 지닌 것. 말하자면 가장 비루한 모습으로 한없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혹은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인정할 때라야 아무 망설임 없이 똥을 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안도현이 말하는 ‘똥에 대한 예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실 말소리 자체의 울림에만 주목하면 똥이라는 말은 경쾌하고 탄력 있는 음악적 울림을 지닌, 그래서 다양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하다. 안도현은 이 소리의 울림에서 비롯되는 연상 작용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시를 썼다.

똥똥, 생각하면
전라도에 눌러앉아 살고 싶어진다

똥이 당도하기 전에 똥똥, 발음하다가 보면
입술도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똥똥, 텃밭에 나가 잔설 헤치고
마른 비늘 같은 겨울 툭툭 털어내고
속아먹는 /똥똥, 찬물에 흔들여 씻어서는 된장에 짬 싸서 먹는/똥똥, 입안에 달싸하게 단물
고이는/똥똥,똥똥으로 점심 푸지게 먹고 나서는

텃밭가에 쭈그리고 앉아/정말로 거시기를 덜렁덜렁거리며/한무더기 똥을 누고 싶어진다

들이 ‘아랫것’들과 똑같이 똥을 싸는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는 동시에 문화적 교양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의 똥을 ‘매화’, 똥 누는 요강을 ‘매화틀’이라고 부른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2) 앵젝트(abject)는 크리스테바의 개념이지만 이를 똥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한만수에게서 빌려옴.

23) 안도현, 「똥」, 『작고 나직한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한겨레 출판사, 2014, 95쪽)

24) 「너에게 묻는다」(“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너는 한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인 적 있었느냐”를 고려하면 이 패러디의 제목은 「너에게 다시 묻는다」쯤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도현, 「봄똥」)

‘열같이 배추’를 가리키는 ‘봄똥’은 방언이고 표준어로는 ‘봄동’이라고 해야 맞다. 그러나 이 시에서 안도현이 ‘봄동’ 대신 ‘봄똥’을 취한 것은 일단 입과 귀에 익은 생활 방언을 사용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그와 함께 표준어의 관념성과 제약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다소 도발적인 의도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봄동’보다 ‘봄똥’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귀에 익은 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음운변화, 즉 ‘봄’의 종성과 ‘동’의 초성이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봄똥’으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봄동’보다 사실은 ‘봄똥’이 우리말의 특성에 더 잘 들어맞고 언어경제의 원리에도 부합하는 말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봄똥’이란 말이 그것을 재배하는 농민, 그것을 먹는 보통 사람의 입과 귀에 익숙한, 따라서 구체적인 생활의 실감을 담아낼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봄동보다는 봄똥이라고 해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이미지와 실제,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의 느낌(그 맛, 향기, 식감 등)이 생생한 실감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면 시인이 봄동이 아니라 봄똥이라고 쓴 것은 이 채소 속에 담긴 약동하는 생명력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표준어 ‘봄동’으로는 지워질 수밖에 없는 삶의 실감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봄똥’ ‘봄똥’으로 이어지는 소리의 울림은 봄똥으로 쌈을 싸서 “푸지게” 점심을 먹는 즐거움을 거쳐서 “텃밭가에 쭈그리고 앉자/정말로 거시기를 덜렁덜렁 거리며/한무더기 똥을 누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봄똥’이라는 말 속에는 그것이 똥을 거름으로 해서 길러낸 것임을 암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래에서 보게 될 시에서 안도현이 시도하는 ‘야생의 똥 누기’는 똥과 관련된 일체의 사회문화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열망이 행위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문명과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수세식 화장실, 청결이라는 위생 관념을 시각화한 하얀 도기(陶器) 변기에 의해서 은폐되어 있는 근대적 똥 누기의 본모습, 즉 단지 똥을 시야에서 차단해 버린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결과 위생을 달성한 것으로 미화하는 문명의 위선을 드러내는 의미를 지닌다. 수세식 화장실은 똥 처리의 과정을 은폐하고 간접화하고 원경화함으로써 그것이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문명적’ 똥 처리의 메카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청결한 화장실에 앉아서 똥을 누면서도 내가 썩 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물을 오염시킨다는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안도현이 그린 탁 트인 개방 공간에서의 똥 누기는 어떤 죄책감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해방의 체험이자, 즐거운 놀이가 된다.

뒷산에 들어가 삼으로 구덩이를 팠다

쭈그리고 앉아 한 뼘 안에 똥을 누고 비밀의 문을 마개로 잠그듯 흙 한 삽을 덮었다 말 많
이 하는 것보다 입 다물고 사는 게 좋겠다

그리하여 감쪽같이 똥은 사라졌다 나는 휘파람을 불며 산을 내려왔다

-똥은 무엇하고 지내나?

하루 내내 똥이 궁금해

생각을 한 뼉 늘였다가 줄였다가 나는 사라진 똥이 궁금해 생각의 구덩이를 한 뼉 찼다가
덮었다가 했다(안도현, 「사라진 똥」, 『간절하게 참 철없이』, 창비, 2008)

이 시의 화자인 내가 똥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가 눈 똥을 신기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야생의 똥 누기는 어떤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끼어들 수 없는 즐거운 놀이이다. 이런 똥 누기는 도시적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리고 근대적인 위생 관념이나 풍속의 관점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상적인 '일탈'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똥 누기를 통해서 나와 내 몸에서 배출된 똥, 그리고 나와 자연은 일종의 공모관계에 놓이게 된다. 자기가 싼 똥을 묻는 행위를 "비밀의 문을 마개로 잠그"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와 자연은 같은 비밀을 공유한, 즉 '문명화된 똥 누기'에 저항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찌운 밥의 찌꺼기였던 똥은 이제 땅의 품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땅을 기름지게 하고 장차 더 많은 생명을 키워내게 될 것이다. 똥이 땅 속에서 거름으로 전화되는 이 과정(부속과정)은 과학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생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나와 자연은 바로 이런 생명 확장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똥을 누는 행위는 마치 파종(播種) 행위처럼 강력한 성적 암시를 담고 있다. 내가 구덩이에 싸고 묻은 똥은 대지의 모성성을 일깨우고 복돋아서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도현의 시에서 똥을 싸고 그것을 땅에 묻는 행위는 결국 나와 대지의 신성한 결합을 상징하는 행위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시적 상상력은 곽재구의 다음 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꽃고추 열무쌈 불땀나게 먹고

누런 똥 싼다

돌각담 틈새 비집고 들어온 바람

애호박꽃망을 흔드는데

이쁘구나 힘주어 누런 똥 싸다보면

해지는 섬진강 보인다

사는 일 바라거니 이만 같거라

땀나게 꽃피고 새 거름 되거라

곽재구 <누런 똥-평사리에서>(출전)

곽재구의 똥 누기 역시 폐쇄된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사리의 어디쯤에서 이루어진다. 시적 주체는 바람에 흔들리는 애호박꽃망을 보며 "누런 똥"을 싼다. 흔히 황금색으로도 일컬어지는 똥의 이 누런 색깔은 애호박의 오염되지 않은 건강함, 그리고 장과 그 장의 주인인 사람의 건강을 시사하는 색깔이다. 이 건강한 "누런 똥"은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름이 되어 장차 사람들, 혹은 자기가 먹을 고추, 열무, 애호박을 키워 내게 될 것이다. 물론 똥이 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미생물, 적당한 습기와 온기의 도움, 즉 자연 전체가 참여하는 협동 속에서 부속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열린 공간에서의 똥 누기는 바로 자연의 유기적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똥-거름으로의 변화를 매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인의 상상 속에서 똥 누기는 자연을 오염, 또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풍성한 모성성(생명력)을 복돋고 일깨움으로써 자연의 순환에 적극 동참하는

행위가 된다.

4-2. 문명과 자연의 경계에서 똥 누기-해우소의 상상력

일찍부터 똥과 관련된 시적 상상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보였던 정호승에게서 똥 누기는 일단 단순히 생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미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된다²⁵⁾. “느닷 없이 내 얼굴에 똥을 갈기고” 날아가는 갈매기를 보며 “나도 한번 하늘에서 똥을 누게 해다오”(「내 얼굴에 똥을 싼 갈매기에게」, 『포옹』, 창비)라는 소원을 발하는 것이 이 점을 시사한다. 새가 자주 똥을 싸는 것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가벼움을 얻기 위한 진화의 결과이다. 심지어 새는 날아가면서도 똥을 짊어오르며 중력을 이겨낸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새똥」). 따라서 “나도 한번 하늘에서 똥을 누게 해다오”라는 소원은 새와 같은 가벼움을 얻고 싶다는, 다시 말하면 세속사의 번다함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똥 누기=몸의 가벼움이라는 생리학적 사실을 진술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평범한 산문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똥, 개똥, 소똥에 비해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²⁶⁾ 인간의 똥을 정화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에 이른다. 그에게 있어 똥 누기는 몸을 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정화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행사인 것이다. 다음 시는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슬프다 구주 오셨네/새벽에 똥이나 누고 나와 맞으라/슬프다 구주 오셨네/배추밭에 똥거름
이나 뿌리고 나와 맞으라//슬프다 구주 오셨네/개 밥그릇에 밥이나 퍼 주고 나와 맞으라/슬
프다 구주 오셨네/푸른 시냇물에 성기나 씻고 나와 맞으라//영덩이보다 배꼽을 흔들며/장미
꽃보다 작약을 흔들며/죽은 애인의 손을 잡고 나와 맞으라/똥 친 막대기나 되어 잠이 들어라
정호승, 「슬프다, 구주 오셨네」(『사랑하다가 죽어 버려라』, 창작과비평사, 1997)

이 시를 산문으로 풀어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슬프다 구주 오셨네”의 반복과 ‘구주’를 맞이하기 전에 마땅히 수행되어야 할 행위를 지시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이 지시하고 있는 행위가 모두 모두 정화, 또는 정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육신의 정화(똥 누기), 자연의 정화(거름주기), 생명·생식 활동을 위한 정화(성기 씻기)-생명의 활성화(배꼽 흔들기)-재생, 혹은 부활(죽은 애인 손잡기)-을 감안하면 이 “구주”가 오신 것을 “슬프다”고 말하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슬픔은 아마도 구주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여전히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주를 기쁘게 맞이 위해서는 그가 발딛을 대지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를 맞이할 인간 스스로의 정화, 정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런 정화와 정죄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지만 마지막의 “똥친 막대기나 되어 잠이 들어라”라는 다분히 선(禪)적인 냄새를 풍기는 구절을 통해서 이런 자기 정화 행위가 목적 지향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상(我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앞의 시에서 “새벽에 똥이나 누고 나와” 운운한 대목을 보면 이 시의 똥 누기 장소는 야생이 아니라 폐쇄된 장소인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 단절된 장소라고 할 수

25) 최미정, 「정호승 시에 나타난 똥의 의미」, 『리터러시 연구』, 10호, 리터러시학회, 2019, 196-108쪽. 이런 ‘사건으로서의 똥 누기’는 어쩌다 눈에 들어간 새똥과 관련해서 “평생 처음/내 눈을 새똥으로 맑게 씻었다”(「새똥」, 『당신을 찾아서』, 창비, 2020)는 진술로도 이어진다.

26) “개똥은 깨끗하다/사람똥은 새들이 날아와/쪼아먹지 않아도/개똥은 새들이 날아와/맛있게/몇날 며칠/쪼아먹는다(「개똥에 대하여」,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창작과비평사, 1999)

는 없다. 오히려 그가 주목한 똥 누기 장소는 문명과 자연의 접점, 인간이 눈 똥이 지체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예전에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잿간, 뒷간이 바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정호승은 이런 농가의 잿간이나 뒷간보다 더 큰 규모의 잿간, 즉 절간의 ‘해우소’에 주목했다²⁷⁾. 해우소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장소이자 인간을 정화시키는 공간이다. 또 해우소가 수행하는 중만이 아니라 절에 출입하는 사부대중(四部大衆)의 차별 없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정호승이 해우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보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해우소는 단순히 개인적인 정화의 공간이 아니라 대승적인 정화가 가능한 공간인 듯이 보인다. 해우소는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공간이자 모든 인간의 차이가 해소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대승적 정화를 가능케 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²⁸⁾.

정호승이 주목한 해우소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한때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변소로 손꼽히기도 했던 개수(改修) 이전의 선암사 해우소이다²⁹⁾. 이 해우소는 “모든 망상과 번뇌의 똥까지” 받아들이는 “낙엽의 집”(「해우소」, 2013)^d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한 여름을 지내고 난 나무의 찌꺼기, 그래서 불태워지기 일췌였던 ‘낙엽’은 그의 시 속에서 똥의 독성을 정화하는 정화제로 새롭게 의미화된다. 그래서 그는 “선암사의 낙엽은 모두 해우소로 간다”(「선암사의 낙엽은 모두 해우소로 간다」)고 쓰기도 했다. 이쯤되면 선암사는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대승적 정화가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낙엽과 가장 더러운 똥이 만나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름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공간, 똥의 변증법적 승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시는 자칫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는 독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대신 자기 삶에 대한 성찰로 나아간다. “나는 당신의 해우소”임을 선언함으로써 자기가 꿈꾸는 삶의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해우소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눈물이 나고
 낙엽이 지는 날이든
 언제든지
 내 가슴에 똥을 누고
 편히 가시라

정호승, 「해우소」, 『당신을 찾아서』, 창비, 2020)

27) 절에서 변소를 가리키기 위해 주로 사용된 말은 정랑(淨廊)이었다. 해우소란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한국전쟁 이후 동학사의 한 스님이 절의 뒷간에 쌓은 똥을 치우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의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다분히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해우소 대신 해의소(解衣所)라는 말을 쓰는 절도 있다. 이 경우도 누구든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아주 잠깐 동안이나마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평등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8) 뒤에 인용한 작품 이외에도 새똥, (『밥값』, 창비, 2010)「설사하다」, 「개똥에 대하여」(이상은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창작과비평사, 1999.)「근황」, 2017)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9) 개수하기 전 선암사 해우소에는 해우소라는 팻말 대신 ‘뒤안’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선암사 해우소에 관한 시는 이 이외에도 「선암사」, 1999)「선암사의 낙엽들은 모두 해우소로 간다」 등이 있다.

언뜻 보기에 「만해의 나룻배」와 행인을 연상시키는 이 시에서 ‘나’를 곧바로 시인과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승이 스스로를 해우소로 자처하는 화자를 내세운 것은 이 곳이 똥의 생태적 순환을 매개하는 장소이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똥을 수용하는, 혹은 그들이 거쳐 온 모든 삶의 흔적-고통과 슬픔을 너그럽이 수용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한히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자를 위해 무한히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호승의 해우소--‘나’는 출출세간(出出世間)의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정죄가 이루어지는 고해소(告解所)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의 화자가 ‘나’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이와 같은 보살행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 혹은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말하자면 그와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못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리고 그것을 삭여서 장차 대지를 기름지게 할 거름으로 만들어 내는 삶과 시, 그것이 그가 해우소의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시인으로서의 소망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더러운 것과 쓸모를 다한 것들을 끌어 모아 정화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쓸모를 갖게 만드는 삶 혹은 시, 그것이 정호승이 똥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달한 최종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3. 문명 속의 변소-재래식 변소와 수세식 변소

사실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똥의 가치를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었던 농경적 삶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똥 냄새를 고약하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견딜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드문드문 퍼져 살 때는 똥과 똥냄새로 인해 고통을 겪을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똥을 싸고 난 뒤 재를 덮는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똥냄새를 차단할 수도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똥을 거름으로 사용해서 지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으니 똥과 똥냄새가 유쾌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똥은 민간에서 심각한 타박상, 혹은 장독(杖毒)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기까지 했으니 똥의 은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따라서 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역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이 내면화된 것은 근대 이후 삶의 방식이 변함에 따라 똥의 생태적 순환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밀하게 따져보면 똥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다. 가령 전혀 농촌 체험이 없는 도회 출신의 고학력 여성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 혹은 도회지에 살지만 농촌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똥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 똥 냄새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야생의 똥 누기는 우연한 해방의 체험이 되거나 상상적인 일탈로서 가능하지만 일정한 제도와 관습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되기는 어렵다. 원시 시대를 벗어나면서부터 똥을 누는 공간은 특정되었고, 그 공간의 특성과 똥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부여되었다. 잿간, 뒷간, 해우소, 통시³¹⁾, 변소, 화장실은 단순한 용어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 지역, 싸고 난 똥을 처리하는 방식, 사용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 문화적 감수성 등의 차이를 동시에 드러내 준다.

30) 최미정, 정호승 시에 나타난 똥의 의미, 리터러시 연구, 10권 3호., 리터러시학회, 2019.

31) 통시는 과거 제주도에서처럼 돼지가 똥을 먹어치우도록 만들어놓은 변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뒷간이나 잿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출전)

사실 똥을 누는 것이 남의 눈에 드러나서는 안 될 은밀한 것이 되고 폐쇄된 장소에서 똥을 누게 된 것은 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때문이다.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은 한때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똥을 누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대 로마의 유적도 그렇고, 백제 시대의 변소 유적도 그 시절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똥을 누기도 했음을 시사한다. 혼자서 은밀하게 똥을 싸고 남이 볼세라 쉬쉬하면서 자기가 싼 똥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럿이, 심지어는 대화까지 해 가면서 똥을 싸고 뒤처리를 했던 것이다. 여전히 칸막이와 문이 없는 중국의 변소는 이런 식의 똥 누기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관점에서 이런 변소는 야만과 미개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특히 도시지역에서 이런 변소가 급속히 사라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똥 누는 장소의 변화는 문명적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삶의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일 수 있다. 똥 누는 장소가 시적 상상력, 혹은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농사의 경험도, 기억도 없는 도시인들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더럽고 비위생적인 것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재래식 변소에 대한 기억을 함민복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똥 똥 노크를 하면
 똥 똥 노크를 받아주며
 수세식 변기에 쭈글트려 앉아 똥을 누면
 내 똥이 불쌍하다
 내가 뼈대 있는 것을 먹지 못해
 나오자마자 주저앉는 무척추
 푸른 채소를 먹어보아도
 매번 단벌만 입히는 무능력
 더욱 미안한 것은 내 똥에게 주는 외로움
 수세식 변기는 내 똥의 연애를 질투한다
 매번 똥들이 태어난 냄새나는 곳으로
 행가래로 들어 올려졌다 떨어지듯
 척 소리내며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추락의 전율에 똥이 똥을 짖을 수도 있을 텐데
 인연이란 묘해 그 여자 똥이었니
 그 여자와 만나는 그 남자 똥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또
 똥끼리 올라타고 옆 똥과 바람도 피워
 스물스물거리는 구데기를 낳아
 사람 목숨 같은 파리를 날려야
 파리약 장사도 먹고 살고
 장사 안 되는 구멍가게 아저씨도 심심치 않을 건데
 떨어져 보지도 못하고 구겨지는
 똥으로서 살아갈 똥의 일생에 대해
 물어볼 똥도 없는 내 생활의 대변자
 싸아 물에 쓸쓸히 쓸려 내려간다

함민복, 「똥」(『당신의 생각을 켜 놓은 채 잠이 듭니다』, 시인생각)

이 시의 변소는 우아, 청결, 위생, 문화와는 동떨어진 것, 한마디로 그로테스크한 공간이다. 구더기가 “스물스물거리는” 재래식 변소의 모습은 기억으로 떠올리기 싫을 정도다. 시인은 이 추한 모습의 일단을 숨김없이 까발리는 한편, 그것을 “내 똥의 연애를 질투”하는 수세식 변소에 대비시킴으로써 의미를 부여한다. 자연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고 고립된, 그리고 몸에서 배출된 똥을 곧바로 정화조로 흘려보냄으로써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최소한의 성찰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수세식 변소의 냉정한 합리성(혹은 위생)과 대비시킴으로써 더럽고 비위생적인 재래식 변소에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시인은 이 변소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퇴적되고 얽히고설키는 기억의 장소이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구로 받아들인다.

문명의 척도를 들이대면 영락없이 야만과 미개의 흔적이라는 판정이 떨어질 만한 이런 변소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시에서 그린 변소는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도시가 급팽창하던 70, 80년대 도시변두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이런 변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 변소는 아침저녁으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주치면서 겸연쩍은 미소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남보다 먼저 차지하기 위해 살벌하게 다투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 똥통 속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똥이 쌓인다. 시인은 이 똥 무더기를 서서로 얼키고섶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똥 무더기가 전혀 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쇄적 관계(똥무더기-구더기-파리약장사-구멍가게 아저씨)를 맺게 만드는 점점 역할을 하기도 했음을 말한다.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적 상상력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화변기나 양변기가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과는 달리 재래식 변소는 더럽고 냄새나는 공간이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기 어렵다. 여름마다 구더기가 들끓고 그것이 파리가 되어 날아다니면서 밥상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똥통이 넘치거나 제대로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각종 수인성 전염병을 불러오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겨울이면 똥 무더기가 첩탐 모양으로 얼어붙어서 똥 누는 사람을 위협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뿐 아니라 이런 재래식 변소가 상당한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다는³²⁾ 점을 고려하면 시인이 이런 재래식 변소에 애착을 갖고 있다거나 그리워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깔끔하고 매끄럽고 세련되었지만 사람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 요즘 사람들의 삶과 대비된 가까운 과거의 삶, 즉 가난하고 누추하고 그 때문에 얽히고설켜서 살아가는 구질구질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뭐라 규정하기 힘든 사람 냄새가 풍겨 나오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의 외로운 똥 누기가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온 단독가구의 삶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32) 변소를 치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똥통을 깊이 파는 일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이 똥통에 빠져 위험에 처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또 똥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농축된 똥냄새 냄새 때문에 졸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변소에 가득찬 암모니아와 구더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린 석유 증기가 뒤섞여 있다가 무심코 붙인 담뱃불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4-4. 절망과 허무, 혹은 ‘밑 빠진 허구렁’으로서의 변기

똥, 혹은 똥 싸는 일과 그 장소에 대한 성찰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80년대와 90년대의 이른바 ‘민중시인’들의 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꼽히는 최승호도 일찌감치 변기, 그것도 수세식 변기³³⁾에 주목하고 이를 제목으로 내세운 시들을 연달아 썼다. 그의 시에서 이 수세식 변기는 거칠고 끝없는 욕망, 혹은 그 욕망의 배출장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변기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기도 하다. 함민복의 시와는 다른 맥락에서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의 시 한 편을 보기로 하자.

1.

변기에서 검은 헛바닥이 소리친다

고통은 위에서 풍성하게
너털웃음 소리로 쏟아지는 똥이요
치욕은
변소 밑 돼지들의 울음이라고

2

변기여/내가 타일가게에서/커다랗게 입 벌린 너를 만났을 때/너는 구멍으로써 충분히/ 내 존재를 주장했다/마치 하찮고 물렁한 나를/혀 없이도 충분히 삼키겠다는 듯이/내가 커다랗게 입을 벌렸을 때/나는 너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내 존재를 주장해야 했을까/뭐라고 한마디 대꾸해야 좋았을까/말해봐야 너는 귀가 없고 병어리고/내 구멍 속은 밑 빠진 허(虛)구렁인데

3

나는 황색의 개들이 목에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았다
똥을 혼자서 다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변기 같은 아가리들을//개들의 시절의 욕심쟁이 개들아/너희들은 똥을 먹어도 참 우스꽝스럽고 녀석들 좋게 먹는다/구토도 없이/구토도 없이///나는 개들의 시체 즐비한 보신탕 골목에서 삶은 개의 뒷다리를 보았건만,

(최승호, 「세 개의 변기」, 『고슴도치의 마을에서』, 문학과지성사, 1985)

얼핏 보면 최승호의 시는 똥이 다시 다른 동물(돼지, 개)의 먹이가 되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변소 밑 돼지들의 울음”. “변기 같은 아가리를 가진 개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돼지도 마찬가지로, “나는 개들의 시체 즐비한 보신탕 골목에서 삶은 개의 뒷다리를 보았건만”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돼지와 개는 똥을 먹고 그것들이 다시 사람에게 먹혔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는 음식-똥-음식의 순환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 수

33) 수세식 변기는 다시 화(和)변기와 양(洋)변기로 나뉜다. 전자는 양변기에 앞서 보급된 것으로 이른바 ‘쪼그려짜’ 자세로 일을 보고 나서 위쪽의 물통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서 똥을 씻어내는 변기이고 양변기는 물통이 일체화되어 있고 이른바 ‘앉아짜’ 자세로 일을 볼 수 있는 좌식 변기를 지칭한다. 최승호가 주목한 것은 양변기이다.

도 있지만 그에게 이 똥의 순환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똥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분쇄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쳐내는 변기의 작용이 지닌 상징성이다.

최승호의 변기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최종적인 산물인 똥을 분쇄해버리고 무화시켜버린다. 물론 위의 시에서 변기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것은 도기 변기와 마주서서 그 한가운데 뚫린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모습을 그린 2 에 국한된다. 1 은 차라리 돼지가 똥을 받아먹는 통시(제주도, 혹은 내륙 산간지방)를, 그리고 3은 변기나 변소보다는 “구토도 없이 구토도 없이” 똥을 먹는 개를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변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 모두가 똥을 받아들이는, 혹은 빨아들이는 구멍(아가리)을 지닌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 3에서 똥은 그대로 사라지거나 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 즉 돼지와 개의 먹이가 된다. 물론 이것들이 똥을 먹는 모습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돼지는 치욕 속에서, 개는 “참 우스꽝스럽고 녀석 좋게”, 그리고 “구토도 없이” 똥을 먹는다. 그리고 이 돼지와 개는 다시 인간에게 먹힌다. 먹고 먹히는 이 과정은 모두 치욕스러운 것, 혹은 우스꽝스러운 것, 혹은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일 수 있다. 하지만 부재, “밑 빠진 허구령”을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변기를 그린 2에서는 그런 치욕스럽거나 우스꽝스러운 삶의 가능성조차 부정된다. 나의 눈앞에 뚫려 있는 구멍은 “마치 하찮고 물렁한 나를/혀 없이도 충분히 삼키겠다는 듯이” 나를 위협한다. 그 앞에서 나는 이 위협에 대처할 방법을 생각하지만 어느 것도 적절치 않다. 부재의 구멍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변기는 “귀가 없고 입이 없”는 데다가 그 “구멍은 속은 밑빠진 허구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를 위협하는 구멍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의 다른 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곳은 탈출이 불가능한 곳, 그런 의미에서 그의 변기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분쇄해버리는, 그러나 누구도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자 감옥, 물리학에서 말하는 블랙홀(black hole)에 가깝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이 허구령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승호의 변기는 다른 시인들의 시에 나오는 변소와는 다른 독특한 문명 비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의 변기는 단순히 똥을 처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욕망의 무한 증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 문명 그 자체의 매혹과 폭력성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생이나 순환과는 무관한 무화로 귀결된다. 그의 변기가 “중심 없이 해체되는 욕망의 궤적”을 보여준다³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변기의 매끄러운 표면과 세련된 디자인은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현대문명의 화려하고 매끄러운 외관을 상기시킨다. 반면에 그 가운데 뚫린 구멍은 욕망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부산물들을 빨아들여 해체함으로써 완전한 무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변기는 생과 멸(滅), 욕망과 허무가 맞붙어 있는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포와 전율 없이는 그 앞에 설 수 없다. 그에게 인간의 삶은 변기에서 물살에 휩쓸려가는 똥 덩어리와 다르지 않은 것, 즉 소용돌이치는 변기 물 속에서 산산히 부서지고 흩어져 쓸려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제로 떠밀려가는/변기의 생, 이제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되뇌게 된다(「공한 인간 혹은 변기의 생」). 하지만 이런 독백으로 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이런 ‘떠밀려 감’, 그리고 해체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34) 이윤경, 최승호 초기 시 연구-‘감힘’의 인식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37쪽.

이런 절망과 자조는 그 자신을 변기에 빠진 귀뚜라미에 빗대고 있는 데서 절정에 달한다. “변기의 뚜껑을 덮으면/귀뚜라미의 절망은 완성된다./동근 벽을 덮치는 동근 뚜껑./나는 귀뚜라미를 건지지 않았다.”(「변기」)는 진술은 이 점을 시사한다. 도기로 된 변기는 어떤 곤충도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매끄러운 벽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뚜라미 역시 이 벽을 기어오를 수 없다. 어디 한군데 붙잡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이 매끄러움은 현대문명의 차갑고 메마른 세련성, 혹은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화자는 귀뚜라미를 건지는 대신 뚜껑마저 덮아버림으로써 실낱같은 구원의 가능성조차 부정해 버린다³⁵⁾.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허무, 또는 절망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귀뚜라미에게 남은 것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함께 쓸려나가는 것뿐이다. 최승호는 이처럼 탈출할 수 없는 변기 속에 갇힌 채 속절없이 무화되어 가는 귀뚜라미를 통해 시인 자신, 혹은 끝없는 욕망 속에 시달리다 무화되어가는 현대인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기’를 주제로 한 최승호의 일련의 시들은 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변기의 상징을 통해서 변기 레버를 당기는 순간 빠르게 소용돌이치면서 쏟아져 내리는 물살에 해체되면서 쓸려나가는 똥 덩어리-욕망의 흔적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감감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변기의 탐욕스러움과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파괴적인 속성을 감추고 있는 변기 표면의 매끄러움이 끝없이 현대문명이 만들어내는 똥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똥 누기에서 어떤 해방의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다른 시인들과는 최승호는 대단히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이상에서 똥과 관련한 시적 상상력이 전개되는 방식을 거칠게나마 살펴보았다. 똥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야생에서의 똥 누기’는 똥과 땅의 행복한 결합을 매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시인들은 이런 행복하고 거침없는 ‘똥 누기’의 상상을 통해서 똥이 땅의 모성성을 복돋는 것일 뿐 아니라 뒤틀린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상적 일탈은 일상의 똥 누기로 수용될 수 없다.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명 속의 똥 누기에 관한 시적 성찰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정호승은 해우소의 비유, 혹은 상징을 통해서 똥 누기를 통한 육체와 정신의 정화를 상상했다. 그의 해우소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고해소이자 재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함민복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대화도 불가능한 수세식 화장실의 외로운 똥 누기와 이미 자취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기억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린 재래식 변소에서의 똥 누기를 대비시키면서 똥을 누는 생리작용 속에 담긴 인간적 의미를 더듬었다. 이에 비해 최승호는 냉정한 어조로 욕망과 그 흔적을 남김없이 무화시키는 수세식 변기의 ‘밑 빠진 허구령’을 그렸다. 그는 똥과 관련된 상상을 직접 펼쳐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그린 변기를 통해서 그가 변기 속에서 해체되는 똥(혹은 존재)을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찾아낼 수 없는 허망한 욕망의 부산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이 똥과 관련된 시적 상상력이 현재 도달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똥과 관련하

35) 박혜경, 「성속(成俗)의 하나됨, 혹은 선적(禪的) 부정의 정신-최승호의 시」, 『상처와 응시』, (문학과지성사, 1997), 198쪽.

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시적 상상력이 전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이언스 월든 기획이 문학에 기대하는 바와 관련해서 본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문학이 어떤 실용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깊고 올바른 깨달음,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삶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 점에서 똥과 관련된 시적 상상력이 다른 차원으로 심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똥이 인간과 자연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아마 똥의 자원화를 통해서 생태적으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끝없는 욕망의 증식에 기초해서 존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화된 생활양식이 지배하고 있고, 도시의 확장과 인구의 밀집도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적 대처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 발상의 전환은 밥과 똥, 그리고 입구멍과 똥구멍이 결국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는 것, 즉 “이이불이 불이이이(二而不二, 不二而二)”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똥을 덜 싸도록 하기 위해서는 덜 먹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식욕을 포함해서 모든 욕망을 증폭시킴으로써 작동되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와의 지속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문학만이 아니라 인문학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문학은 이 싸움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인식보다 감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말한 욕망의 체제가 주로 자본의 지배를 받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감성에 침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왜 문학이 이 어려운 싸움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욕망의 무제약적 충족을 행복과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포르노 문화의 환상을 깨기 위한 싸움은 사실상 문학 그 자체의 본령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기성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삶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기 속에서 진정한 욕망과 거짓 욕망을 분별하고 자칫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거짓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를 포함한 문학적 상상력이 추구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문학적 상상력이 먹는 것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덜 먹으면 자연 덜 싸게 마련이고 그것으로 똥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가능성은 당연히 줄어들고 똥을 처리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덜 먹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식자재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고기와 가축들을 대량 살상하는 끔찍한 일도 줄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최소한의 행동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짝짓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오로지 살찌우기 위해서만 사육되다가 제 수명의 절반도 누리지 못한 채 식탁에 올라 결국 똥이 되고 마는 술한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더 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위해 우리의 시적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전망할 수 없다.

완(完).

서울의 똥오줌 수거체계의 재형성과 변화*

-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

소준철**

I. 들어가며

오물이란 단어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과 “(인간과 동물의) 똥오줌 따위의 배설물”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는,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 그대로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감각을 불러온다. 똥과 오줌을 처리하는 일은 지금 도시에서 행정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지 않는 요즘엔 똥냄새가 나지 않는다. 각 가정마다 변기가 한 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상업시설도 그렇다. 한 사람이 똥오줌을 싼 후, 변기의 우측에 달려있는 레버를 돌리면, 물통이 저장해둔 물을 흘린다. 똥오줌은 이 물에 흘러 내려가 주택단지나 지역별로 마련된 공동의 정화시설에 임시보관되었다 적정한 농도가 되면 하수도를 따라 종말처리장으로 향한다. 일일이 똥오줌을 치던 시절과 달리 똥오줌을 치는 일이란 사라진 직업이 됐다.

똥오줌 수거는 해방 이후 행정이 관리하고, 민간업자가 그 일을 위탁받아 운영됐다. 똥오줌 수거가 시 당국이 개입할 ‘행정’의 문제였고, 민간 업자들의 ‘사업’이었다. 게다가 똥오줌 수거의 전체 과정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민간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언론과 경찰을 통해 개입한다고 해도 늘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이었다. 특히 (1) 똥오줌의 저장 방식, (2) 수거 시기, (3) 수거 방식, (4) 요금의 책정, (5) 수거한 똥오줌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발생했다. 요컨대 가가호호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수거하는 체계를 변경해야 했다. 이제의 행정은 사회문제를 줄이고, ‘비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했다. 게다가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고, 동시에 시에서 관할하는 행정구역 역시 확장됐다. 해방 후 1949년에는 식민지기 경성 지역에 현재의 성북지역과 영등포, 강동구 일부를 편입했고, 여기에 약 143만 명이 살았고, 1960년에는 같은 행정구역에 244만명의 인구가 있었다. 1963년, 서울시는 서쪽 끝으로 김포공항 인근과 동쪽 끝으로 현재의 강동구 인근, 북쪽으로는 노원 인근까지 편입하며 현재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커졌고, 1970년이 되자 인구가 550만으로 늘어났다.¹⁾ 이후, 1980년에는 1973년에 마지막으로 확장한 면적에 835만명, 1990년에는 1,060만명으로 급증했다. 도시의 팽창과 인구가 급증하며 과밀화하는 압력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도시행정의 맞대응이 존재했다. 여기에는 서구로부터 수입된 제도와 기술을 통한 도시 ‘위생’의 실천이 크게 작용했다.

최근 똥오줌의 수거체계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조선에서 인분을 비료로 이용한 방법과 의미를 다룬 연구가²⁾ 발표된 이후, 도시의 근대적 변화/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 투고를 앞둔 원고입니다. 그렇기에 인용을 자체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1)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확장한 것은 1973년이다.

2) 김영진·김이교, 「조선시대의 시비기술과 분뇨 이용」, 『농업사연구』7(1); 최덕경(2010), 「조선시대 분뇨 시비와 인분」, 『역사학연구』40; 최덕경(2010), 「동아시아에서의 분의 의미와 인분 실효성」, 『중국사연구』68; 최덕경(2011), 「동아시아 분뇨시비와 생태농업의 굴절」, 『역삼민속학』35; 배영동(2010), 「연변 조선족자치주 안동촌 주생활의 생태민속학적 접근」, 『비교민속학』41.

행정의 전모³⁾,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행정과 관련 지식이 합쳐진 위생체계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⁴⁾로 확장됐다. 여기에서 제국일본의 제도와 위생지식을 기초로 근대적 똥오줌 수거체계가 형성된 경성부의 청소행정(서호철, 2016)이 해방 후, 어떤 지점에서 연속되었고 혹은 단절되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속과 단절은 기존 연구에서처럼 ‘위생’이라는 지식에 의해서라기 보다 도시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행정의 실질적인 통치기술에 의해 이뤄진다고 전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인민의 일상 역시 제도의 변화에 연동되었을 것이다.

도시의 근대화에서, 국가에 의한 오물의 처리는 인구를 보전하는 행정이며, 공중보건, 공중위생을 위한 위생학을 근거로 행정력을 동원한 실천행위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오물을 청소하는 일은 더러움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이 똥오줌과 감염병의 문제는 1970년대까지 지속된 사회문제였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진 똥오줌에 관한 연구들은 감염병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위생 정책의 역사를 다뤄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서울을 비롯한 한국 전반의 쓰레기와 똥오줌을 비롯한 오물의 처리수준은 발생량에 대비해 거의 100%에 도달했고, 현재는 사회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현재의 자원순환이라는 패러다임 아래에서, 쓰레기와 똥오줌 치는 일은 “소비-폐기-수거-재처리/재활용”의 사이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써, 인민의 영역이 아닌 도시정부가 해야 할 ‘행정’의 영역으로 온전히 변환된 듯 보이는 게 사실이다.⁵⁾

여기에서 똥오줌은 감염병과 예방이라는 ‘위생-통치’가 아닌 도시정부가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똥오줌 수거체계에 어떤 행정적 통치를 강화했는지 살펴볼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는 국가정부 단위에서 이뤄지는 계획의 실천주체라는 한계와 인민들의 불만과 불신 사이에서 요동치는 상황에서 도시정부로 자치적인 행정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서울시가 똥오줌 처리체계를 어떻게 재형성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서울시가 국가의 계획과 인민의 요구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시기적으로는 해방 후 능력이 부족한 행정과 인민의 요구가 뒤엉켜 똥오물이 인분비료로 사용되던 시기에서 하수처리장이 생겨나는 1970년대 시기까지로 한정한다.

II. 똥오줌 수거체계의 형성과 한계

1. 전통적인 방법: ‘치수’(治水)

한국에서 똥오줌 수거체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조선시대의 준천 사업과 식민지기 초기

-
- 3) 김용선(2017), 「분뇨서사에 굴절된 대도시 한양의 팽창」, 『온지학회』50; 김상은(2017), 「일제하 도시 청소행정의 전개와 변화 - 「조선오물소제령」 제정 전후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은진(2017), 「20세기 초 일제의 서울지역 오물 처리체계 개편과 한국인의 대응」,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4) 신동원(1997),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박윤재(2005),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한지원(2012), 「1910년대 『조선위생풍습록』에 나타난 식민지 위생조사와 의료민속 실태」, 『역사민속학』 39; 박윤재(2019), 「위생에서 청결로 - 서울의 근대적 분뇨 처리」, 『역사비평』126.
- 5) 소준철·서종건(201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서울연구원; 소준철·이민재(2016), 「빈곤한 도시노인과 지역 내 자원의 흐름」, 서울연구원; 변금선·윤기연·송명호(2019),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준철(2020), 『가난의 문법』, 푸른숲 참조.

한성위생회의 활동,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위생조사 사업(과 위생)과 경성부청 내 청소행정
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세세한 운영에까지 미치지 못 하지만, 조선 후기에서 식민지기
까지 오물이 어떤 연유로 어떻게 처리되었지에 대한 역사적 정리가 정리된 셈이다. 우선
여기서는 앞선 연구를 정리하며, 똥오줌의 근대적 수거체계가 식민지기에 어떻게 형성되었
는지 짧게 정리하고자 한다.

똥오줌 수거에 대한 역사적 기원은 대개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서 왕에 의해 이뤄진
'준천(濬川) 사업'으로 여겨진다. 조선시기에는 가옥과 골목의 청소는 인민이 직접 했고, 공
중을 위해 오물을 치우는 준천사업은 정부의 치수(治水) 행위의 하나였다. 이때의 목표는
수해를 피하기 위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 성안에 큰비가 내리면, 청계천과 지류에 물이 흘
러들어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했지만, 오물이 쌓여 물이 넘쳐 흐르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성안의 통행이 어려워지거나 집과 (나무)다리가 유실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태조·세종·
영조는 천변가로 물이 흘러넘치지 않게끔 천을 깊이 파 물길을 내고, 준설을 통해 오물을
걸어내는 사업을 펼쳤다. 그렇지만 이들의 사업은 청계천과 그 지류를 대상으로 했지, 현
재와 같이 인민의 집안과 집밖을 샅샅이 치우는 방식은 아니었다. 또 인민을 위해 항시 이
뤄진 사업이 아니었고, 작업에 소비되는 비용과 인력이 상당해 유의미한 규모의 사업은 조
선시기 내내 몇 차례 시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군주의 덕목 중 하나인 치산치
수(治山治水)를 통해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현실화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지, 현재 인민
의 안전을 위해 발생할지 모를 근대적 청소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⁶⁾

왕의 통치를 위시한 치도(治道)와 치수(治水)사업이 아니라, 전염병의 발생과 교통의 불
편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인민의 장소를 청소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일
까? 대한제국시기(大韓帝國, 1897-1910) 사회는 외인들의 유입이 잦아졌고, 서구와 일본
의 도시를 경험한 조선인들이 늘었다.⁷⁾ 1986년, 대한제국은 남대문과 정동 사이의 거리를
정비했다.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1896-1899) 해외를 경험한 조선인들이 당시 조선
의 거리와 미국 혹은 일본의 거리를 비교하며 위생적인 조치로써 거리의 청소가 필요하
고 지적하고 있다.⁸⁾ 주체의 문제를 떠나, 이 사업은 서구식 도로관이 조선에 이식된 첫 사

-
- 6) 기호철 외(2013)의 연구에서 타 지역에 비해 청계천 인근에서의 기생충 감염에 대한 수치가 적은 상
황은 준천의 이런 상황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기호철·배재훈·신동훈(2013), 「조선후기 한양 도성 내
도양매개성 기생충 감염 원인에 대한 역사 문헌학적 고찰」, 『의사학』22(1), 89-132쪽; 이상배(2009),
「조선시대 도성의 치수정책과 준설사업」, 『중앙사론』30; 염정섭(1998), 「조선후기 한성부 준천의 시
행」, 『서울학연구』11.
- 7) 김백영(2006a), 「개항기 서양 지식인들의 서울 인식 - 로웰, 길모어, 비숍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68; 한규무(2006), 「개항기 선교사들의 서울 인식」, 『향토서울』68.
- 8)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는 역사학계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태진(1998)은 이 사업에 대
해 사업의 주체가 고종이며, 고종의 왕권을 내보이려는 수단이라고 밝힌다. 이에 반해 한철호(1999)는
대한제국 초기 한성부에서 이루어진 치도사업이 친미개화파가 주도한 실질적인 주도자였고, 고종은
그들의 사업을 원조·후원했으며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홍보와 지원의 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주장에는 '광무개혁'에 있어 고종과 친미개화파가 같등하고 대립했다는 흐름을 반박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종옥(2011)은 이 두 주장을 반박하며 반대로 일본에 요구로 박정양이 입안해 이뤄진 사업이
라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정부 내 권력의 문제가 아닌 도시정부의 행정력과 계획
으로 인한 개인습속의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어느 한 논의를 찬성하기 보다, 도로의 미화, 즉, 도
시를 청결하게 하는 그 자체를 발견하는데 의의를 두고 진행할 것이다. 김광우(1990), 「대한제국시대
의 도시계획 - 한성부의 도시개조사업」, 『향토서울』50; 한철호(1999), 「대한제국 초기 한성부 도시개
조사업과 그 의의 - '친미' 개화파의 치도사업을 중심으로」, 『향토서울』59; 이태진, 1998,
「1896~1904년 서울 도시개조사업의 주체와 지향성」,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국도시론』, 박영사; 이
종옥(2011), 「갑오개혁 이후 한성 도로정비사업과 부민의 반응」, 『향토서울』78.

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청소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며 실천했던 주체를 두고, 대한제국기 근대화를 주도한 정치 권력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일 뿐이며, 실질적인 도시개조사업과 이의 일환으로써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청소의 대상이 인민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대한제국기 한양의 조계지(정동) 내 외국인을 위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보다 깨끗한) 풍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2. '청소행정'의 등장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민을 위해 청소행정을 실시한 건 식민지에 들어서서다. 특히, 똥오줌을 치는 일이란 감염병 예방에 초점을 두며 시작된 것으로 여겨졌다. 관제 위생조합인 한성위생회(1908-1914)가 결성되어 전염병 예방 활동으로 소제업무를 맡았다가 행정 통합의 이유로 폐쇄되었고⁹⁾ 중앙정부의 역할을 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위생조사 사업이 진행됐다.¹⁰⁾ 이러한 작업들이란 통해 당대 의학계에서 각종 감염병의 원인을 똥오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¹¹⁾ 아주 일부지만, 도시위생의 분위기 속에서 근대적 건축의 변화도 존재했고, (극소수 지배세력일) 인민의 습속에 영향을 미쳤다. 똥오줌의 냄새와 접촉을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해, 식민지기의 근대적 양식의 건축물 내에 '위생 설비'의 일종으로 부엌과 욕실이 설치됐고 채광과 환기가 중시된 (현대적) 사유가 등장한 것이다.¹²⁾

그렇지만 청소를 감염병 예방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행정의 일부로만 보기엔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국가가 인구보전을 목적으로 한 통치에서, 청소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도시위생으로만 이해한다면, (현대적 이해에서의) 토지이용과 환경보전과 교통 등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물의 청소를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의 입장을 염두에 뒤 새롭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란 제도를 통해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적 행위로 이해된다. 그리고 국가가 하나의 모델을 성립한 후, 전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청소행정이란 국가가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행위의 일부로도 확장해 이해할 수 있다.

본격적인 도시정부의 청소행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 최근의 한 번역서에서였다. 아카마 기후(1924/2016)가 남긴 르포르타주인 『대지를 보라』에서 묘사된 식민지시기 청소현장의 모습은 식민지기 청소가 경성부의 청소행정이며 도시하층민의 일임을 잘 묘사한다.¹³⁾ 이때 시작된 '근대적' 청소행정은 경성부 직영-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됐고, 일종의 '이권사업'이며 수거권·판매권을 독점하는 똥오줌수거의 체계가 등장했다.¹⁴⁾ 경성(오늘날의 서울)의

9) 박윤재(2004), 「한말·일제 초 한성위생회의 활동과 식민 지배」, 『서울학연구』22; 이연경·김성우(2012), 「1885년~1910년 한성부 내 일본인 거류지의 근대적 위생사업의 시행과 도시 변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28(10).

10) 한지원(2012), 「1910년대 『朝鮮衛生風習錄』에 나타난 식민지 위생조사와 의료민속 실태」, 『역사민속학』39; (2013), 「1920년대 경무국 위생과 조사보고서를 통해 본 의료민속 연구」, 『역사민속학』42.

11) 서홍관·황상익·채종일, 「한국 장내기생충 감염의 시대적 변천과 그 요인에 대한 관찰 - 1913년에서 1989년까지」, 『의사학』1(1).

12) 이 양식은 1970년대까지도 낯선 풍경이었지만, 아파트의 시대에 들어서자 당연한 것이 됐다. 이연경(2017), 「1920년대 근대 건축에서의 위생 담론의 소개와 적용 - 朝鮮と建築」에 소개된 의사들의 기사를 중심으로,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18.

13) 아카마 기후(2016), 서호철 옮김, 『대지大지를 보라 - 1920년대 경성의 밑바닥 탐방』, 아모르문디.

14) 서호철(2016), 「서울의 똥오줌 수거체계의 형성과 변화」, 『서울과 역사』93.

경우, 청소행정의 실질적 주체는 (총독부가 아닌) 경성부 총무부 청소과로 보아야 하며,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지의 법을 준용해 『조선오물소제령』(1937년 10월 1일 시행)을 공포하며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¹⁵⁾ 더구나 이 경성부 청소과의 운영법은 해방 후 도시서울의 청소행정의 초기에 영향을 미쳤다. 해방후 상당기간 동안 『조선오물소제령』이 유지됐으며, 식민지기의 본부와 청소사업소(특히 청소과 출장소)는 이후 시청과 구청의 관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의 청소장비와 오물처리장치의 이용은 도시서울의 초기 행정의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리는 여지껏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도시서울의 청소행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청소행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연결된 위탁업자나¹⁶⁾ 그 바깥의 자영업자, 그 장비와 (오물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혹은 적환장과 매립지와 같은)처리장을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

Ⅲ. 부족한 행정력: 수거대행과 민간업자

1. 해방 후 제도적 변화

제도적으로 본다면 똥오줌을 치는 일은 1945년 해방 후에서 1961년까지 일본의 「오물소제법」(법률 11호, 1900년)에 근거한 「조선오물소제령」(조선총독부제령 8호, 1937년 10월 1일 시행, 1961년 12월 31일 폐지)에 근거했다. 해방 후에 이 법에 근거해서 경성부청의 민생부 청소과(위생과)가 똥오줌 처리를 맡았다. 1946년 「군정법령」106호에 의해 서울시청이 설치되며, 똥오줌의 처리는 서울시청 보건위생국 보건과(1946년 12월 13일부터는 위생과)가 맡게 된다. 그리고 1948년 12월 29일부터는 서울시청의 사회국 위생과에서 도맡았고, 1955년 6월 10일부터 1961년 10월 6일까지는 경찰국 보안과에서 담당했다.¹⁷⁾ 그리고 「조선오물소제령」이 폐지되기 한 해 전 보건사회부는 「오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임 규정」(보건사회부령 59호, 1960년 12월 29일 시행, 2008년 6월 30일 폐지)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각 시의 시장이 똥오줌과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위임할 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조 2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중심지에 있어서의 분뇨 수집운반용 차는 가급적으로 자동흡인식 수집운반용차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¹⁸⁾

2. 똥오줌 수거체계의 전후 복원과 민간업자들의 분노 팔기

해방 후 서울의 상황은 “불미(不美)”한 상태였다. 똥오줌으로부터 퍼지는 냄새와 쌓인 걸보습도 좋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을 맞아 돌아온 사람들은 서울의 ‘위생’문제를 짚으며 시가 청소할 것을 요구했다.¹⁹⁾ 1947년, 용산구와 마포구, 성동

15) 김은진(2017), 「20세기 초 일제의 서울지역 오물 처리체계 개편과 한국인의 대응」,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상은(2019), 「『조선오물소제령』실시 전후의 경성부 청소행정의 구성과 운영」,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21.

16) 제한적인 자료 탓에 파악하기 힘들 것으로 여겼지만, 대한제국 시기에 운송업과 청소행정에 참여한 마차회사에 대한 연구는 그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오진석(2008), 「1897-1900년 서울지역의 마차회사의 설립과 경영변동」, 『역사학보』197.

17) 이러한 담당부처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18) 196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는 청소대행제도를 수의계약 체제에서 공개입찰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 연표」 참조).

구, 중구에서 “대행기관을 계약해 ... 분노를 처리케 하는 동시에 분노판매권을 넘겨” 주며, “구청에서 처리할라면 하로(하루) 한 마차에 600원 가량 들지만 대행기관더러 시키면 2백원, 즉, 구민 부담이 평균(평균) 3-40원 밖에 안될 분 얹이라(아니라), 대행인은 하로(하루)에 동원되는 사오십대의 마차”가 있으며, “분노(가 자연스레) ... 시외농촌에 파는 이윤(이윤)”을 올려 능률적이라 했다. 이처럼 똥오줌을 치는 일은 시당국의 행정 가운데서 꽤 큰 이권사업이었다.²⁰⁾

그렇지만 이 ‘대행인’만 똥오줌을 쳐내는 건 아니었다. 대행인이 맡지 않는 지역과 시간엔 인근의 농민들이 서울로 들어와 똥오줌을 쳤다. 1950년 4월 1일부터 금지됐다.²¹⁾ 대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를 제외한 시간에 계약한 업자만 작업을 할 수 있었다.²²⁾ ”월 2회로 동·통·반을 순회하여 작업하리라는 바 동장은 인분 수거 여부를 조사하고 수거제(收去濟)의 검인(檢印)을 하게” 했다.²³⁾ 동시에 종로구·한강인도·이북간선·충정로가 일대에는 똥오줌을 운반하는 마차의 출입이 금지됐다.²⁴⁾

일, 분 제거는 월 2회로 하고 수수료는 제거 시에 징수한다.

이, 쓰레기는 동 수집장 이외에는 내놓아서는 안된다.

삼, 오물 제거 수수료는 반드시 제거완전 여부를 확인 후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을 것.

사, 각 국민반에게는 작업반이 도착시 작업 지시지를 안내하여 작업 중에는 증명날인 할 것.

오, 분노 외 제거작업은 언제나 야간과 새벽에만 실시한다.

육, 오물제거수수료는 종로구는 회에 육십환이고, 기타구역은 오십환으로 인상징수한다.

칠, 분수(糞水) 제거에 있어서는 각 구 사회과나 경찰서 보안계에는 분노신고부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변소가 넘칠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제거를 요구할 것.

전쟁 이후 상황은 뒤바뀌었다. 전쟁으로 인해 위탁이 중지됐고, 전쟁 중에는 서울시가 트럭 10대를 개조해 직접 처리했다.²⁵⁾ 휴전이 이뤄지기 직전, 서울시는 구청이 직접 처리하던 것을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맡겼다. 1953년, 10월 15일부터 서울시내의 분노는 ‘대한 청소협회’라는 민간업체가 도맡았다. 당시 발표한 “오물 청소 요령”은 위의 인용과 같다.²⁶⁾ 그렇지만 같은 해, 11월까지 “시 당국의 트럭 23대와 우마차 50대”로 “분노 15,044 석”을 반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능력이 제한적이었기에 문제를 모두 해결했는지는 미지수다.²⁷⁾ 그렇기에 1950년 금지된 농민의 똥오줌 수거는 불법적이지만 암암리에 필요했던 것

19) “해외에서 돌아온 우리겨레들이 이구동성으로 민도의 향상과 도시미를 가추라고한다. 서울시의 불미(不美)한 상태에 대하여 이번 귀국한 김용중(金龍中, 1898~1975)씨도 절실히 느낀바 있었던지 다음과 같은 감회를 말하여 청소문제에 있어서 시당국과 언론인에게 간곡한 부탁을 받아 국내에 있는 우리들은 적면(赤面)을 금할 수 없었다.

[김용중씨 談] 귀국서 동경에 23일 체재하였는데 전시중의 상처도 낫기 ○이지만 참으로 깨끗하였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보니 불결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시 당국은 무엇을 하였으며 또한 언론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는지 알고싶다는 의미로 청소문제를 강조하였다.” (『서울시는 무엇하고 있나, 불미한 오물산적을 통탄, 김용중씨 談』, 『독립신문』, 독립신문사, 1947.6.21, 2쪽.)

20) 「분노처분에 서광」, 『조선일보』, 1947.1.29, 2쪽.

21) “농민이 인분을 처가는 것은 비료도 되고 청소에도 도움도 되는데, 4월 1일부터는 이것을 일체금지한다고. 봄과 여름이면 집집마다 변구(便口)도 과연 깨끗해질는지?” 우선 공동변소에 넘쳐 흐르는 그것이나마 깨끗이 해주었으면”(『꼬리표』,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0.3.30., 2쪽.)

22) 「인분운반마차 도심지통행제한」,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0.5.9, 2쪽.

23) 「사월의 과제 이룩하자 한맘 한뜻으로」,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0.4.1, 2쪽.

24) 「인분운반마차 도심지통행제한」,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0.5.9, 2쪽.

25) 「새 분노운반차 등장」, 『조선일보』, 1952.12.8, 2쪽.

26) 「오물청소요령」, 『조선일보』, 1953.9.29., 2쪽.

으로 여겨지며, 언론에서의 단속 사례를 볼 때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자, 도시에는 폐허를 복구하는 일 뿐만 아니라, 다시금 몰려드는 사람들의 똥오줌처리까지도 시급했다. 시는 똥오줌처리를 경찰국으로 이관했다.²⁸⁾ 그렇지만 경찰국에서 똥오줌 처리를 위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분처리 마차조합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이었다.²⁹⁾ 그리고 정부는 똥오줌을 모아두는 집적소를 “세멘트”로 만들어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³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대한청소협회, 혹은 마차조합의 대행기간과 그 실재를 행정자료로서 입증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조사작업을 통해 입증할 각오다.)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들의 계약 내용 혹은 계약 위반의 사항을 알 수 있기에, 당시의 상황을 그릴 수는 있다.

당시의 구청의 관리와 대행 민간업체의 실행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돈 문제였고, 내무부 혹은 시에 의해 정해지는 ‘수수료’의 문제였다. 더 나아가 이 수수료란 업체들의 운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수수료’란 시당국이 위탁한 민간업자가 실제 처리를 하며, 시민들에게 직접 받는 돈이었다. 앞서 1953년에 발표된 수거 수수료 60환으로의 인상은 실제로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 다음 해, 1954년 2월 27일, 내무부는 오물제거경비의 호별세를 책정한 시조례를 (다시) 발표했는데, 중구와 종로구는 이전처럼 똥오줌 한 통에 20환씩을 현장에서 지불했고, 다른 구에서는 한 호당, 호별세에 자력을 표준해 상중하로 나누었고 상등은 100환, 중등은 80환, 하등은 60환씩을 납부하기로 했다.³¹⁾ 그렇지만 이 금액은 1956년에는 30환, 1958년, 똥오줌 한 통이 60환으로 다시 조정됐다.³²⁾ 1962년의 화폐개혁 이후에도 같은 통이 6원으로 조정됐다.³³⁾

1956년을 기준으로, 분뇨 처리를 대행한 민간업체는 시민들로부터 한 지계당 30환을 받았는데, 이렇게 트럭 한 차당 2,400환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 그리고 이 분뇨를 비료장수들에게 매각해 매년 3,000환-5,000환을 벌었다. 즉, 매일같이 수수료를 받고, 일년에 몇 차례 분뇨를 매각해 돈을 벌었다. 그리고 경찰서에 일종의 운행대금을 지급했고, 이를 제외한 비용으로 인건비와 차량수선비, 그밖의 잡비를 지불했다.³⁴⁾

“윤세익: 우리 서대문부회에서는 현재 분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기 계신 초대분회장 흥진표씨께서 수고하신 끝에 그런 업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분뇨 사업에 대해서 요즘 시의회라든지 각계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요새도 그렇고 여름에도 수지가 덜 맞습니다. 봄철에는 농사짓는데 분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가 맞습니

27) 「서울 오물처리 내월 중엔 해결」, 『조선일보』, 1953.11.13, 2쪽.

28)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찾을 수 없었다.

29) 「윤국장 회견 談 방화책임제 강력히 추진」,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3.1.7, 2쪽.

30) 「국토를 미화하라」,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3.4.30, 2쪽.

31) 「오물제거경비 호별세표준거출」,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54.3.4, 2쪽.

32) “밤의 정적을 뚫고 별안간 “불이야”하는 큰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울려오면 누구라도 크게 놀란다. 가슴이 덜컥 주저앉고 식은땀이 등에 흐른다. 그러나 깜짝 놀라 정신이 들어 긴장하는 순간 계속하여 “……이여”하는 외침이 다시 귀를 가다듬고 들어보면 원경 “변소치요……”하는 외마디 소리인 것이다.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하게된 이후 가끔 당하는 봉변인데. 발음이 워낙 푹푹치 않은데다가 잠결에라도 들으면 “변소치요”인지 “불이야”인지 “도둑이야”인지 분간이 안가 공연히 주민을 놀라게 한다. 나직히 종을 치든가 무슨 방법을 마련했으면.”(「휴지통」,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58.3.31, 3쪽)

33) 1962년 6월 10일, 4차 화폐개혁을 통해 10환이 1원으로 변환됐다. 즉, 1958년에 비해 가격 자체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분처리에 폭리말라」,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5.2.13, 1쪽.

34) 「분뇨 청소작업 이권으로 말썽, 국회의원과 여러 기관간」, 『조선일보』, 1956.8.7, 2쪽.

다. 서대문 분회가 이 분노사업을 착수한 이래로.. (그전에 하던 사람도 잘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군에서 배운 조직이라든지 체계를 살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대문 서장이나 시위생과에서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하고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서만 이런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일면으로 보아서는 영광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서대문보다도 서울 전체 분회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³⁵⁾

민간업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정리된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구청마다 위탁업체가 존재했고, 서대문구의 경우 전쟁상이용사 조직에서 그 업무를 대행했다. 그들에 따르면 (당시 분노 수거차 57대로) 각 구 단위 경찰서장과 업자들 간에 계약이 이뤄지며, 트럭 한 대 분량의 분노를 비료업자가 보통 5천-6천 환에 샀고, 민간업체는 차 한 대로 월 30만 환을 버는 사업으로 보았다. (운행대금은 차 한 대당 12만 환이라고 한다.)³⁶⁾ 그렇지만 1950년대, 업체와 각 구의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공모방식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3. 행정력의 부족과 과다징수

1957년, 허정(許政, 1896~1988)은 서울시장이 되며 “명랑한 도시를 만들게끔 노력”하겠다고 하며, “청소의 철저, 인분의 적시제거, 보도(人道)의 수리, 급수(給水) 사정의 완화, 어두운 골목의 전등 시설, 시유재산의 관리”를 약속했다. 그리고 시의 재정이 부족한 것이 세금 부과에 공정하지 못했던 탓이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도 말하기도 했다.³⁷⁾ 그렇지만 시는 식민지기에 만들어진 저장소, 즉 분노탱크를 계속해서 이용할 뿐이었다.³⁸⁾

저장소뿐 아니라 똥오줌을 치는 위탁업자들 역시 식민지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전처럼 교외의 농부들이 똥오줌통을 실은 마차를 끌고 와 시내를 순회하면서 똥오줌을 쳤다. 그리고 중구·종로구와 같은 도심지역의 똥오줌처리는 시가 위탁한 업자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일부지역은 주민들이 분노차 인부에게 똥오줌을 처달라며 사정을 해야 가능한 실정이었다.³⁹⁾ 게다가 인부들이 똥오줌을 처가도 시외의 저장소에 갖고 가지 않고, 시내 채소밭에 구덩이를 파고 인분을 버리는 문제 역시 발생했다.⁴⁰⁾

그러나 서울에서 똥오줌을 따로 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1957년 당시 경찰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똥오줌은 평균 3,027석 정도인데, 경찰국의 수거차 68대로 1,148석을 운반하고, 나머지 중 1,000석이 넘는 양이 길거리나 개천으로 흘러내려 간다. 게다가 관공서 등에 설치된 수세식변소에서 방류된 똥오줌 역시 개천으로 흘러갔다.⁴¹⁾

우선 업자들이 시당국과 똥오줌을 치는 계약을 할 수 있기 위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가 존재하기도 했다. 소문에는 1957년, 3대 국회의 국회의원 가운데 몇몇이 “청소작업권을 둘러싸고 추문을 터뜨린 일이” 있고, “모모 정상배(政商輩)가⁴²⁾ 배경이 되

35) 「요즘 처지는 어떤가? ⑥ 상이용상들과의 좌담회」, 『조선일보』1957.1.16, 3쪽.

36) 「요즘의 처지는 어떤가? ⑦ 상이용사들과의 좌담회」, 『조선일보』, 1957.1.17, 3쪽.

37) 「명랑한 서울 만들터」,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7.12.18, 1쪽.

38) 「민시 보건 좀먹는 분노탱크, 주택지대 한복판에 방치」,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0.10.14, 3쪽.

39) 「두통꺼리 분노제거 부진으로 비명」,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53.8.11, 2쪽.

40) 「지정외의 곳에 인분 버리지 말라 시경서 엄중경고」,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54.8.1, 3쪽.

41) 「청계천 정확 안될가?」,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58.1.29., 2쪽.

어 기존 위탁업자를 제치고 작업권을 위탁받으려는 공작이 있었다.⁴³⁾ 더구나 학교와 같은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의 똥오줌 처리는 그 규모와 이익이 상당해서 쟁탈전이 이루어지는 게 다반사였다.⁴⁴⁾



[그림 1] 1962년, 서울특별시 중구 똥오줌 수거 처리 (출처: 서울기록원)

더 큰 문제는 똥오줌을 치는 수수료에서 온다. 수수료를 내는데서 알 수 있듯이, 똥오줌을 치는 일은 각 가정이 정부에 대금을 내는게 아니라, 업자에게 요금을 냈다. 그래서 업자들에 의한 과다징수가 자주 일어났다. (게다가 이 문제는 196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1965년에는 제도로는 똥오줌 한 통이 이전과 같은 값이지만, 똥오줌을 쳐내려 온 인부들은 한 지게에 ‘반 통’을 쳐내고 한 통값을 받고, 한지게에 ‘9할’ 정도가 차면 10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⁴⁵⁾ 고지대에 똥오줌을 치는 인부들이 오지 않거나, 곧장 떠나는 문제도 있었다. 제도상 똥오줌을 치는 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야 했다. 그런데 서대문구 만리동·천연동·현저동·영천동(현재의 중구 지역)에 있는 고지대 판자촌에는 분노처리차가 보름 내지 한달에 한 번 오거나, 인부들이 한 통당 6원씩인 수거료를 20원까지 받고 술값·담배값을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혹은 몇면 집에서만 똥오줌을 치고는 곧 떠나는 일도 있었다.⁴⁶⁾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검찰에서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967년의 조사를 통해 업자들이 임의로 수거료를 올려 받는 데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시가 계약한 9개 지역의 업자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의아한 내용은 수거료가 똥오줌 한 통당 6원이 아니라 3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서울시와 9개 업자들이 계약한 가격이었다. 업자들이 10원까지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한 통당 많게는 7원까지 올려 받아 부당한 이득을 챙긴 셈이었다. 게다가 계약에 따르면 수거한 똥오줌을 시당국이 규정한 장소에 가져다 버려 비료로 팔리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이 업자들이 시외로 가지고 나가 비싼 값에 팔아 이문(利文)을 남겼다.⁴⁷⁾ 동대문구의 대행업자인 김우동(金祐東)은 중형의 파이프수거차 한 대당 수거료가 총 6백원씩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1,500원씩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⁴⁸⁾ 시는 사실

42) 사전에 따르면, 정상배(政商輩)란 “정치가와 결탁하여 정권을 이용해 개인적인 세속적인 야심을 채우려는 무리”를 가리킨다.

43) 「기자석」,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7.12.20, 1쪽.

44) 「돋보기」,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0.8.14, 1쪽.

45) 「인분처리해 폭리말라」,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5.2.13, 1쪽.

46) 「안오는 분노차」,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7.6.1, 8쪽.

47) 「인분수거에 거액 부당이득」,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7.8.7, 3쪽.

상 이러한 상황을 목인한 셈이었고, 별도의 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 부당 이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인분수거업무를 대행체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했다.⁴⁹⁾

IV. 똥오줌 수거체계의 재형성: 비료에서 오물로

1. 인분비료라는 가능성과 한계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 특히 화학비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물의 의미가 달랐다. 오물 가운데서도 똥오줌은 하나의 자원으로 이해됐다.⁵⁰⁾ 무엇보다 조선 후기의 농업생산력이 발달하는 이유 중 하나로 똥오줌(人糞)을 비롯한 거름의 발달을 들 수 있다.⁵¹⁾ 식민지기부터 인분의 사용은 회충과 전염병을 야기한다며 지적받았다. 그렇지만 비료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분비료를 쉽사리 금지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똥오줌은 딱히 ‘처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앞 장에서 살핀대로 똥오줌을 치는 일이란 부족한 비료를 확충하는 일이었다. 해방후 한국사회는 분단으로 북한의 흥남 질소비료공장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화학비료를 자가생산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해방 후 농림부는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의했다.⁵²⁾ 또 정부는 (화학비료의 필요에 공감하는 한편) 똥오줌을 “그대로 내버림이 없이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비료를 만들”자는 요구를 내기도 했다.⁵³⁾

	퇴비	녹비	산야초	분뇨류	회류	합계
1953년	5,985,890	196,914	427,636	934,823 (11.99%)	248,307	7,793,570
1954년	6,071,443	254,690	366,283	934,528 (11.85%)	258,204	7,885,148
1955년	5,201,355	260,683	165,546	1,143,965 (16.21%)	283,892	7,055,441
1956년	5,077,119	259,906	189,500	1,092,417 (15.81%)	291,000	6,909,942
1957년	5,536,719	167,670	166,399	975,190 (13.83%)	207,244	7,053,222
1958년	5,456,058	112,142	182,058	907,737 (13.04%)	301,753	6,959,748
1959년	5,663,681	173,702	248,939	1,055,174 (14.30%)	237,933	7,379,429
1960년	5,657,344	176,293	249,053	1,064,650 (14.35%)	269,947	7,417,287
1961년	4,906,581	276,943	290,928	1,130,801 (16.49%)	250,416	6,855,669

[표 5] 1953년-1961년, 자급비료소비실적 (단위: 1000관, 출처: 『농림통계년보』, 1958, 68쪽; 1962, 22쪽.)

48) 「분뇨수거 부당이득 동대문구 업자 입건」,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7.8.9, 7쪽.

49) 「분뇨수거 업무 시서 직영키로」,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7.8.8, 8쪽.

50) 역사적 접근은 아니지만 전경수(1997)는 똥을 하나의 자원으로, 현재의 정화에서 생태적 순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논한다. 이를 조선시대의 전통으로 이해하는 연구로는 최덕경(2011)이 있다. 전경수(1997), 『똥이 자원이다 - 인류학자의 환경론』, 통나무; 최덕경(2011), 「동아시아 분뇨시비의 전통과 생태농업의 굴절」, 『역사민속학』35;

51) 염정섭(2002), 『조선시대농업발달연구』, 태학사; 최덕경(2010a), 「조선시대 분뇨시비와 인분 - 고대 중국의 분뇨이용과 관련하여」, 『역사학연구』40. 최덕경(2010b), 「동아시아에서의 분의 의미와 인분의 실효성」, 『중국사연구』68; 최덕경(2015), 「근세 일본의 비료와 분토시비」, 『역사학보』226.

52) 「농토에 대한 施肥의 방법」,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48.2.11, 2쪽.

1957년, 정부는 “인분 처리요령”을 통해 ‘인분비료공장’을 직접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⁵⁴⁾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똥오줌을 비료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1959년 국제연합한국재건단(UKRA)의 경제원조로 건설된 충주비료공장이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표2]에서처럼 화학비료의 자리는 퇴비를 비롯해 인분비료를 늘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1]에서처럼, 정부는 농민들에게 인분비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953년 약 12%에서 1961년 약 16.5%까지 늘어났다.⁵⁵⁾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기비료’ 공장 설립을 시도했다. 1955년 용산구 이촌동에 “동양 유기비료주식회사”라는 간판이 나붙은 공장이 설치됐다. 이 자리는 식민지기부터 똥오줌을 모아놓은 자리였고, 바로 인근에 비료 제작을 위한 공장이 설치됐다.⁵⁶⁾ 이 공장은 1944년 상공부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용자를 받아 만들어진 공장으로, 유기비료를 연간 12,000여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다.⁵⁷⁾ 여기에는 “매일같이 10여 추력[트럭]의 인분과 쓰레기”가 드나들었다.⁵⁸⁾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공장을 두고 여러 민원이 발생했다. 공장이 설치된 당시 용산에 사는 한 주민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며 공장의 설립을 반대했다: “첫째, 악취가 극심하므로 도시에서 30리 이상 격리되어야 하고, 둘째 추악한 똥물을 다량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해변이 아니면 그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⁵⁹⁾ 공장 설치 후 2년이 지난 1957년, 2년 전의 우려대로 악취와 파리떼의 문제가 발생했다.⁶⁰⁾

실질적인 문제는 인분비료 공장의 낮은 생산성에 있었다. 매일 매일 공장으로 날라지는 원료인 똥오줌의 공급량에 비해 생산된 비료의 양이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9년 당시 위탁업자들(“청소협회”)이 용산 일대에서 차 네 대의 똥오줌을 공장으로 가져왔는데, 공장은 이 똥오줌을 비료원료로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받지 않았다.⁶¹⁾ 덩달아 환경문제로 야기됐다. 업자들이 남은 똥오줌을 식수원이기도 한 한강에 방류했고, 이로 인해 식수원인 한강이 오염됐다. 이 시기, 공장 인근에 180여 세대 9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

53) 「선거방해를 음모가장 중간파경계 민보단 해산은 선거 후에」,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50.5.20, 2쪽.
 54) “뿐만 아니라 이 요령은 앞으로 시가 똥오줌을 처리할 대강의 요령들을 나열한 종합적인 발표였다. 주된 내용은 첫째, 내무부·보건사회부의 주관 아래에서 똥오줌과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 제조 공장을 증설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농림부의 주관으로 야채 및 금지구역 내의 일반작물에 대해 똥오줌 사용을 금지하고, 똥오줌을 제외한 악취가 없는 자급비료나 화학비료를 전용토록 하고, 첫째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알선하고 화학비료를 배급토록 한다. 셋째, 농림부와 내무부의 주관 아래에서 도시 근교와 큰 길가에서 200미터 이내의 농경지에서는 지방행정기관과 관할경찰의 협의 하에서 똥오줌을 사용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내무부의 주관으로 똥오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작물 및 금지구역과 야채재배지에 대한 똥오줌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경찰에 의해 주의·단속된다. 야채의 세정(洗淨)은 청정수로 하며, 세정장(洗淨場)이외에서는 세정할 수 없었다.” (「인분처리요령을 결정」,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7.3.28, 3쪽.)
 55) 이후 1962년부터 ‘비료의 관수공급’으로 공급책이 일원화됐다. 비료는 국산이건 수입이건 ‘농협’을 통해 공급되어야 했다(이병준(2016), 「제1차 경제개발 시기 비료수급 정책(1962-1966)」, 『사학연구』 122, 239-292쪽 참조).
 56) 「이촌동 일대 쓰레기와 인분사태」,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7.8.28, 1쪽.
 57) 「유기화학비료공장 서울에 설치를 계획」,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54.11.12, 1쪽.
 58) 「이촌동 일대 쓰레기와 인분사태」,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7.8.28, 1쪽.
 59) 용산R생, 「한강변 인분공장 국제공항도 무색」,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55.9.19, 3쪽.
 60) 이 기사에는 인분통과 쓰레기를 줍는 녀마의 사진이 실려있음.(「이촌동 일대 쓰레기와 인분사태」,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7.8.28, 3쪽.)
 61) 1959년부터 공장이 ‘동양유기비료주식회사’에서 ‘풍국비료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한강에 인분 버려 말썽」,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59.11.15, 1쪽. 참조.)

고, 1,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교통부 ‘공작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같은 해 11월, 똥오줌 때문에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⁶²⁾ 이런 상황에서 비료공장의 설비 확충에 대한 정당성이 한강의 오염 문제로 인해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⁶³⁾ 이런 상황에서 1962년 서울시가 유기비료 공장을 추가로 지으려 시도하지만, 1964년이 되어서도 ‘700만 불’이상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 해 시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공장이 문을 닫은 것에 대한 정보를 아직 찾지는 못 했다. (충주 화학비료공장이 세워지는 시기 전후로 문을 닫고, 풍국비료회사의 창고로 쓰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촌동에서의 똥오줌을 보관하지 못해 생겨난 한강 오염 문제는 1960년대 중반기에도 반복됐다. 1967년, 서울 용산관내에 트럭으로 30여대, 분량으로는 240만 ℓ의 똥오줌이 수거됐는데, 용산의 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건 겨우 14만 ℓ에 불과했다.⁶⁴⁾ (이 시기에 들어서면 공장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던 걸로 여겨진다.) 남은 400여만 ℓ가 한강물에 흘러 넘쳐 들어갔고,⁶⁵⁾ 다시금 식수원인 한강이 오염됐다.⁶⁶⁾ 이런 상황에서 1967년,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에 있는 3만섬 량의 분뇨저장탱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서울에는 서부이촌동을 비롯해 8개의 저장탱크(총 14만 1천섬)를 보유하고 있었다. (1968년 서울시가 불용 재산으로 내놓은 저장탱크 부지로 신수동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이 8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신수동으로 여겨진다.⁶⁷⁾)

서울시의 청소정책의 변화와 함께 똥오줌을 ‘비료’로 쓰는 일을 억제하는 정책 역시 동원됐다. 1960년대, 화학비료가 국산화되어 생산량이 늘어나자, 이제야 정부는 인분비료를 소재(蔬菜) 농사에 사용할 수 없게 했고, 보리와 같은 일부 작물에만 허용했다.⁶⁸⁾ 더이 과정은 똥오줌이 자연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한, 가장 결정적 계기였고, 현재의 ‘분뇨비료’의 적은 생산의 이유가 되었다.

2. ‘불결한 똥오줌’의 시대

1962년, 시 경찰국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채소밭에 인분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단속했다. 특히 “영등포-김포-구로동-대림동”, “미아리-도봉리”, “청량리-중랑교”, “영천-불광동-수색”, “왕십리-독섬-구의리”를 중점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⁶⁹⁾ 얼마 지나지 않아 국

62) 「한강에 인분 버려 말썽」,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59.11.15, 1쪽.

63) 실제로 1962년 서울시가 유기비료 공장을 추가로 지으려 시도하지만, 1964년이 되어서도 ‘700만 불’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시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숨은 골칫거리 쓰레기처리」, 『조선일보』, 조선일보신문사, 1964.1.7., 7쪽.)

64) 1955년에 15,000톤에서 1967년 140,000톤으로 증가했지만, [표1]을 볼 때 생산량의 수준이 미미한 정도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65) 「시민식수의 수원 한강 오염」,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7.2.2, 4쪽.

66)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고양군 신도면(현재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과 고양시 덕양구의 동쪽 일대)에 인분 비료공장과 청계천 일대에 오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군정에서 민정으로 속제이양 (1) 서울시」,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3.12.18., 7쪽 참조)

67) 서부이촌동을 없애고, 동대문구 묵동, 성동구 풍납동, 영등포구 방배동,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동산리와 같은 면의 화전리와 또 같은 면의 결산리에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분뇨탱크 6개 신설」, 『조선일보』, 조선일보신문사 1967.3.28., 8쪽; 「정부소유도 멋대로 재산수입으로 계상」,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8.4.16., 3면.

68) 신동원(1997),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박윤재(2004), 「한말·일제 초 한성위생회의 활동과 식민 지배」, 『서울학연구』22; 박윤재(2005),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신규환(2008)의 『국가, 도시, 위생 -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69) 「인분비 쓰지말라」, 『조선일보』, 조선일보신문사, 1962.5.1., 3쪽.

회의원 정헌조가 발의한 「기생충질환예방법안」이 1965년 12월 10일에 수정통과됐다. 시의 행정구역이 확대되었지만, 시의 행정력은 외곽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1966년, 마포구 동교동의 아동공원 부지로 결정된 공지(空地)는 동네주민들의 야채밭으로 쓰였고, 사람들은 정부가 몇 해 전 강력하게 금지했음에도 똥오줌을 비료로 썼다.⁷⁰⁾ 야채밭에 인분비료는 금지되었지만, 정부는 맥(麥)류의 생산에 인분비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했다.⁷¹⁾ 그러나 1968년 “기생충 박멸의 해”를 맞아 다음의 28개 도시를 인분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모든 농작물에 인분비료 사용을 금지했다.⁷²⁾ 서울, 부산, 수원, 의정부, 안양, 소사, 고양, 춘천, 원주, 속초, 청주, 충주, 대전, 대천, 전주, 이리, 군산, 김제, 광주, 송정, 대구, 경주, 왜관, 울산, 김해, 제주, 서귀포. 동시에 인분비료 사용금지 「식품위생법」(법률 1921호, 1967년 5월 31일 시행)의 3조 1항과⁷³⁾ 「오물청소법」(법률 914호, 1962년 1월 1일 시행)의 11조⁷⁴⁾에 근거했다.⁷⁵⁾ 서울시로서는 이 조치에 곤란함을 표시했다. 시는 똥오줌을 수거해 경기도 고양군의 분뇨처리장을 비롯해 11개 처리장에 저장하고 비료를 만들었고, 이 비료를 농촌에 팔아왔다. 그런데 보사부의 이 조치로 인해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고, 이에 시는 해제안을 건의했다.⁷⁶⁾ (어쨌거나 시는 같은 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기생충박멸기간으로 정하고,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구충약을 투약케했다.) 동시에 서울시 전역을 분뇨사용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동대문구(면목동, 상봉동), 성동구(구청동, 거문동, 탑곡동, 도곡동), 성북구(정릉3동), 서대문구(세검동, 연희동, 수색동, 녹신1/2동, 대광2동, 증가동), 영등포구(남성동, 신곡동, 고척동, 김포공항 주변 1km이내, 김포가도 좌우 1km이내)를 인분비료 사용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⁷⁷⁾ 이렇게 서울에서 분뇨의 활용은 금지됐다.

그렇지만 기생충과 감염병의 원인으로 똥오줌을 지목하고, 분뇨의 활용을 줄인다고 해서 똥오줌이 줄지는 않았다. 확장하는 서울에서 똥오줌은 심화되는 문제였다. 즉, 똥오줌은 기생충과 감염병의 문제이면서 판자촌의 ‘불결한’ 현실이기도 했다.

1960년대, 정부와 이농민들은 재개발과 이주의 연속이었다. 정부가 기존의 판자촌을 철거하고 재개발했고, 여기에서 밀려난 이농민들은 외곽지역으로 재이동해 판자촌을 재형성하곤 했다. 시에서는 똥오줌 문제를 두고, 공동변소를 짓곤 했다.⁷⁸⁾ 판자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변소라는 건, 다음 사진과 같은 변소였다. 사실 ‘변소’라기에는 가림막에 불과

70) 「민원 (23) 서교지구에 있는 아동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매일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66.9.27, 4쪽.면

71) 「천700만석 생산 무난」, 『매일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68.2.27., 5쪽; 「보리밭기·흙넣기 철저히 똥은 인분 주고 풀뽑기도 농림부」,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8.3.2., 7쪽.

72) 그렇지만 인분비료를 대체할 화학비료를 어떻게 충당할지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기생충 왕국 그 불명예 씻어지려나」,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8.10.23., 7쪽.)

73) “3조(판매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판매이외의 수여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항 부패 또는 변질되었거나 미숙한 것. 다만,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고 식용으로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74) “11조 (분뇨사용의 제한) ① 특별청소지역 또는 계절적 청소지역에서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분뇨이외는 비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청소지역 또는 계절적 청소지역에서 영농자가 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처리하여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75) 「28개 금지구 지정 기생충 박멸 위해」,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8.4.29., 3쪽.

76) 「농작물 인분사용금지 서울시서 해제 건의」,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8.8.21., 4쪽.

77) 「학생들에 구충약」, 『매일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68.11.2., 3쪽.

78) 「월동 걱정 … 이주철거민」,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1.12.2, 2쪽.

했고, 사람들이 일을 치르면 똥오줌이 청계천물에 쏠려 한강으로 가는 구조였다. 이 똥오줌을 처가는 이는 따로 없었다. 게다가 청계천 복개(覆蓋)공사가 이루어지고, 청계천은 도심의 하수도에 불과한 상황이라, 청계천 판자촌 주민들이 청계천에 일을 치르는 건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⁷⁹⁾

판자촌의 똥오줌은 구청과 계약맺지 않은 일종의 비법적 민간업자가 나서 쳤다. 행정의 능력 바깥의 영역이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재개발 사정을 염두에 둘 때, 시는 전 지역의 똥오줌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의 서쪽 끝에 있는 마포구 도화동은 똥오줌 치는 사람들이 오기는 하지만, 이들은 시의 위탁업자들이 아니라 사영(私營)하는 자들이고, 한 지게에 100환씩 받고 가져갔다. 그렇지만 사영 인부들은 시정부가 운영하는 저장소를 이용할 수 없으니, 마포의 경성감옥 앞 밭이나 빈 땅에 버리고 도망가기 일췌였다.⁸⁰⁾ 1968년, 한강 너머 영등포지역 끄트머리에 위치한 신평, 대방, 신남, 도림동 등의 지역에는 수거차량이 20여일 이상 오지 않은 일도 있다. 주민들이 영등포구청의 청소과와 인분수거대행업소에 수거를 요청했지만, 차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시 영등포구청은 총 51개 동이 있었는데, 비수거동을 제외한 41개 동의 똥오줌을 수거하기 위해 20대의 차량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똥오줌을 친 건, 무허가인 사영업자들이었고, 그 값은 한통에 기준가의 세 배가 넘는 20원에 달했다.⁸¹⁾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사분과에서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세시민들이 사는 높은지대와 변두리의 쓰레기, 인분 등의 수거가 엉망으로 시민보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청소를 민간업체에 대행시"켰지만, 예산이 감소된 것보다는 실질적인 청소와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⁸²⁾ 이제 똥오줌의 체계는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서는 청소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행정부는 똥오줌의 쓸모를 고심하기 보다, 더 많은 양의 '오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기술-행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3. 변소와 하수도라는 '행정-기계화된' 도시로

영화 "서울의 휴일"(1956)에는 주인공이 한강과 덕수궁 근처에서 휴일을 즐기는 모습이 나온다. 특히 한강은 당시 사람들이 배를 빌려 식도락을 즐기며 유람을 하고, 백사장에서 수영하는 장소였다. 한강에서 놀던 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디서 일을 치른 걸까? "물 위에 떠있는 몇 개의 '쁘트' 구락부에 '화장실'이란 허울좋은 간판이 붙어있으나 그, 실, 화장실이란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한강 속으로 곧 통하게 되어 있을 뿐이며 기타 탈의장, 음식점 등에는 변소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급한 때를 당한 사람들은 부득이 강 속에 뛰어들어 용무를 끝마치거나 사장 위에 그대로 방분(放糞)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에 있어선 어쩔 수 없는 실태(失態)를 보여주고 있다. (공중변소는 전차종점에 있음) 또한 의료시설은 한 곳도 없어 때때로 수영 중 발병하는 환자들의 긴급구호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변소시설의 불비로 말미암아 한강백사장에서 개최되는 '시민 위안의 밤' 때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려 해도 이곳 저곳에 인분(人糞)이 깔려

79) 「서울의 비대증 해부 도시계획 백서에 의한 진단 (상)」,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3.1.16, 7쪽.

80) 「시장은 공약을 지켜라」,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1.3.17, 2쪽.

81) 「감감 ... 분노 수거차」,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8.4.22, 8쪽.

82) 「쓰레기수거 변두리 소홀」,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5.11.5, 4쪽.

있어 가끔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⁸³⁾ 남산공원 역시 다를 바 없다. 남산 케이블카의 탑승장 인근은 1966년 당시 무허가주택이었다. 이 지역에는 케이블카 탑승장의 변소 외에 별도의 변소가 없었다. 그래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길가에 일을 보는 경우가 잦았다.⁸⁴⁾



[그림 2] 1962. 서울특별시 중구 분뇨수거 처리 (출처: 서울기록원)

1962년, 서울시가 보건국 위생과로 변경하며 (원조사업을 통해) ‘흡인식 분뇨수거트럭’과 ‘공중변소’를 도입하였다. 공중변소란 단순히 ‘비밀스럽게 일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넘어, 분뇨탱크와 당시 도입한 ‘흡인식 분뇨수거 트럭’의 흡입장치가 연결되는 일종의 행정-기계였다. 공중변소가 더 많은 곳에 배치되며 동시에 흡인식 트럭이 늘어나는 과정이란 행정이 행정-기계를 동원해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실질적으로 이 행정-기계는 인력의 수와도 관계가 있다. (변소 숫자와 트럭의 관계 표로 작성 중) 얼마 지나지 않은 1968년, 서울시가 똥오줌 수거를 직영화하며, 똥오줌을 치는 일은 종사자가 꽤 많은 직업군이 됐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게 구청장이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이 업자들이 분뇨수거원을 채용하고 똥오줌을 치게끔 했다. 서울시의 “3백 50여만의 시민이 하루에 방출하는 분뇨(의 양이) … 1만6천여 석(이며)… 이 분뇨를 실어내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 수거차는 249대, 인부는 1,946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들을 각 구마다 9개 중대, 81개 소대, 439개 분대로 청소조직을 편성했다.⁸⁵⁾ 이들은 각 지역의 주거공간, 상업공간과 공중변소를 도맡아 똥오줌을 처리했다.

“분뇨원에 주는 봉급은 서울시 예산에서 배정받고 있다. 분뇨수거원이 받는 돈은 일당 500원. 다른 노임에 못지않게 높은 일당이 책정되어 있지만 이들 분뇨원의 한달 수입은 별반 신통치가 못하다는 것. 분뇨수거는 새벽4시부터 시작하여 밤11시까지 계속하게 되므로 건강이 지속될 수 없어 한달에 평균 16~17일 일하고 나머지 14일은 쉬어야 피로가 회복된다. 따라서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8천원 안팎이라는 것. 정식수입 이외에 분뇨를 처리해주면 집에 따라서 상냥스러운 아주머니들이 담배나 음식을 준 다든지 또는 20~30원의 특별 ‘팁’을 주는 경우도 있다(「돈(125)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나, 『매일경제』, 매일경제사, 1968.11.12., 3쪽.”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다음 사진은 1969년 2월 쯤의 성동구 풍납동 362(구중교) 부근 길의 모습이다. 중구청과 성동구청 소속의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수거차 20여대가 인분을 쏟아버린 모습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본래 인분저장소가 이 길가에서 한강

83) 「건전한 놀이터 못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57.8.19, 3쪽.

84) 1966년 1월 남산의 판자촌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판자집 100여동이 불탔고, 3,0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남산동 판자촌 화재의 교훈. 『중앙일보』, 1966.1.19., 2쪽; 「악취 나는 남산공원. 『경향신문』, 1966.7.12., 4쪽.)

85) 「돈(125)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나. 『매일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68.11.12., 3쪽.

쪽으로 200여 m 근처에 있는데, 겨울철에 얼었던 길이 녹아 질척거리려 수거차들이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수거차들이 저장소까지 가는 대신에 길거리에 인분을 쏟아버리고 달아나버린 것이다.⁸⁶⁾

보건사회부는 1968년 “분뇨처리 10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내용은 “1977년까지 전국 각 시·군·읍 소재지에 완전살균장치가 된 분뇨저장탱크 306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⁸⁷⁾ 수거에 집중된 체계를 저장과 처리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분뇨저장탱크의 확장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다. 시는 (인력에 따른) ‘수거’를 줄여나가는 것이었고, 핵심은 정화조와 분뇨처리장이 파이프(하수도)로 연결된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초기 하수도는 지금처럼 튼튼하진 않았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문화촌아파트(건설사 주택공사, 11평형 456가구)는 똥오줌을 처리하는 하수도관거를 설치한 초기의 집합주택이다. 1968년 단지 내에 설치된 하수도가 터졌고, 축대 틈으로 오물이 새어 나왔다. 주택공사가 보수한 내용은 터진 하수도는 그대로 두고 축대 틈을 방수지로 막고 시멘트로 바르는 데 그쳤다. 겨울이 지나고 1969년 봄이 되니, 다시 하수도의 오물이 축대 틈으로 새어나왔다.⁸⁸⁾ 1969년에 입주한 동대문구 창신동의 낙산 시민아파트(건설사 성아산업 등, 1,262가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아파트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세식 변소가 있었는데, 변소의 똥오줌이 아래층 천장으로 새어나와 떨어졌다. 게다가 정화조의 똥오줌이 넘쳐 단지 바깥으로 흘러내린 일도 있었다.⁸⁹⁾

1969년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의 간사였던 윤태현은 “오수는 일절 정화시설을 갖춘 수세식으로 개량설치(하여) … 부패·여과·산화·소독과정을 거쳐 완전히 정수되어 하수도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아직 당시 “정부가 특수건물 이외에 정화조시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주택에 적합한 … 정화조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며, “재래식 정화조는 시공비가 고가이며 공기(工期)가 오래걸리며, 점유면적이 커야 하는” 것처럼, 이전까지의 똥오줌 처리체계가 실용화되기 힘든 여건이라고 분석한다. 그래서 ‘수세식’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전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것을 고안 제조”해야 하는데, “취흡식(取吸式)의 면적으로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다량생산하여 일반보급이 용이하여 시공이 간편”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여 대중적”이고, 무엇보다도 “소제(掃除)와 보수(補修)가 용이”하며 정화과정이 “과학적으로 그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⁹⁰⁾

1969년 서울시는 동대문구 목동, 영등포구 철산동, 방배동에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며, 하루 3,031㎏에 해당하는 분뇨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처리량은 전체 분뇨 발생량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때까지도 도심지역의 똥오줌은 청계천을 통해 한강으로 배수됐다. 이 당시 제1한강교(현재의 한강대교)와 제2한강교(현재의 양화대교) 사이에서 물고기들이 단체로 급사하기도 했는데, 이는 똥오줌이 한강물 안에서 썩어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⁹¹⁾ 게다가 보건사회부와 서울대 의대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한강 본류에 대한 수질오염조사”에서 한강의 산소량이 적고, 부패가 심하며, 대장균에 오염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 역시 “가정과 집단생활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공업 폐수, 불완전한 수세식 변소

86) 「대로변에 오물 버려」,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9.3.22., 8쪽.

87) 「분뇨처리 십년 계획 전염병 등 막기 위해」,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8.1.10, 3쪽.

88) 「오물 파이프 또 터져」,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9.6.4., 4쪽.

89) 「오물 흘러 대피 소동」,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70.4.15., 8쪽.

90) 「나의 제언 수세식 생활의 시급성」, 『매일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69.3.27., 3쪽.

91) 「시민위생에 큰 위협」,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69.11.20., 1쪽.

에서의 오물, 그리고 전담에서 사용하는 인분비료”가 한강물에 뒤섞였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근거해 보사부는 이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내려오는 비누 제품과 수세식 변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⁹²⁾

1973년, 서울시에 설치된 화장실은 54만여 개인데, 그중에서 수세식은 8%에 불과했다. 수세식 중에서도 불량이 꽤 많은 편이었다. 시는 수세식을 늘리기 위해 새로 건설된 영동 지역의 신축건물에 수세식변소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의 수세식 변소 중에서 “5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연건평 6백평 이상의 다량배출처, 각종 음식점 등의 인허가업소는 화장실을 개수(改修)”하게끔 강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직 하수도관거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오물이 직접 하수도(예를 들어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방류식 대신에 정화조 방식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다.⁹³⁾ 특히 1982년 정부는 『오물관리법』을 전부개정하며 “오수정화시설”이 의무설치하게끔 했고, 분뇨정화조에 대한 제조업과 청소업에 대한 허가제 규정을 설치했다. 즉, 현재의 똥오줌 처리체계란 1983년의 법제로 기초를 다졌다. 하수도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란 1983년에서 1987년쯤 들 수 있다. 1983년, 전체 16%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이 1987년 97.6%, 1988년 98.3%에 도달했다.⁹⁴⁾ 똥오줌 수거처리체계가 일종의 행정기계화된 건, 다르게 말하자면, 화장실과 정화조, 하수도관과 하수처리장으로 일원화된 건 1980년대에 들어서서다.

연도	총인구 (명)	하수도보급률(%)	배수계획 면적(ha)	배수구역 면적(ha)	하수도 총 연장(km)
1970	5,433,198	27.9	26,170	7,310	1,463
1971	5,850,925	33.4	26,170	8,740	1,713
1972	6,076,143	36.0	26,170	9,430	1,845
1973	6,289,556	40.3	26,170	10,545	2,109
1974	6,541,500	44.1	26,240	11,574	2,343
1975	6,889,502	47.4	26,240	12,442	2,517
1976	7,254,958	49.0	26,240	12,856	2,780
1977	7,525,629	53.0	29,271	15,513	3,098
1978	7,823,195	57.0	30,123	17,170	3,639
1979	8,114,021	62.1	31,600	19,610	6,210
1980	8,364,379	64.8	31,869	20,663	6,558
1981	8,676,037	66.8	32,138	21,462	6,790
1982	8,916,481	68.8	32,407	22,296	7,032
1983	9,204,344	85.9	31,577	27,121	7,286
1984	9,501,413	89.2	31,613	28,190	7,589
1985	9,639,110	93.0	31,622	29,431	8,294
1986	9,798,542	96.0	32,296	31,021	8,343
1987	9,991,089	97.6	32,306	31,517	8,540
1988	10,286,503	98.3	32,306	31,749	8,551
1989	10,576,794	98.6	32,310	31,867	8,977
1990	10,612,577	98.1	32,632	32,013	9,122

주

1. 하수도보급률은 총 인구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2. 총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처리인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또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 처리장이 없지만 타 지역에 설치된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인구.

출처 1. 1970-1982: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 1983-1990: 서울시, 지표로 본 서울시 주요 행정통계, 2001년, 1994년.]

92) 「보사부 보건대학원 공동조사서 밝혀 한강 물 식수에 부적」,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70.4.27., 7쪽.

93) 오봉환, 「수세식 변소 시설과 종류」,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73.3.15., 7쪽.

V. 나오며

미완

참고문헌

“서울기록원”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디지털 컬렉션”(『독립신문』)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조선일보』)

“중앙일보 웹사이트”(『중앙일보』)

“국가기록원”(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58』, 1958(국가기록원);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62』, 1962(국가기록원))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위생법』(법률 1921호, 1967년 5월 31일 시행))

“YouTube”(“서울의 휴일”(이용민 감독, 1956))

김기송·정은숙, 『한국민중구술열전 2 김기송 1933년 11월 26일생』, 눈빛, 2005.

김동민, 「특집 도시와 하수도 및 청소: 우리나라 도시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도시문제』14(8), 1979, 47-63쪽.

김상은, 「일제하 도시청소행정의 전개와 변화 - 「조선오물소제령」 제정 전후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용선, 「분뇨처리에 굴절된 대도시 한양의 팽창」, 『溫知論叢』50, 2017, 203-228쪽.

김은진, 「20세기 초 일제의 서울지역 오물 처리체계 개편과 한국인의 대응」,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김태호,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들녘, 2017.

문태훈,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3-2007」, 『한국정책학회보』17(3), 2008, 131-161쪽.

박유식, 「특집 도시와 생활환경: 도시미화와 청소 - 분뇨와 진개를 중심으로」, 『도시문제』3(9), 1968, 9-16쪽.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005.

-----, 「위생에서 청결로」, 『역사비평』126, 2019, 260-180쪽.

박중현, 「특집 도시의 공공시설투자: 도시의 분뇨처리방법 및 대책」, 『도시문제』6(12), 1971, 26-36쪽.

서한금·나선하, 『한국민중구술열전 43 서한금 1929년 10월 25일생』, 눈빛, 2008.

94) 「서울시 업무보고요지」, 『동아일보』, 1983.2.8, 10쪽; 「안양·난지 하수처리장 가동 오늘부터 하루 1백 50만t 정화」, 『조선일보』 1987.3.20., 10쪽; 「하수처리능력 45만t 증대」, 『조선일보』, 1988.4.3, 13쪽.

- 서호철, 「서울의 뚝오줌 수거체계의 형성과 변화 - 189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서울과 역사』93, 2016, 175-220쪽.
-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아카넷, 2014.
- , 『북경뚝장수』, 푸른역사, 2014.
-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 윤종철, 「특집 도시행정과 관계법령 - 문제점과 개혁: 도시의 환경시설과 현행법 - 오물처리문제를 중심으로」, 1968, 『도시문제』3(4), 41-49쪽.
- 이제훈, 「공해현상이 급증하는 「서울」을 구제해야: 공해방지가 제일의 급선무이다」, 『도시문제』6(1), 1971, 118-119쪽.
- 임창봉·서현정, 『한국민중구술열전 14 임창봉 1935년 1월 21일생』, 눈빛, 2005.
- 정준호·박영진·김옥주, 「1960년대 한국의 회충 감염의 사회사: 사람과 함께 하는 인룡에서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의사학』25(2), 2016, 167-204쪽.
- 조풍도·이경미, 『한국민중구술열전 22 조풍도 1933년 9월 8일생』, 눈빛, 2007.
- 편집부, 「특집자료: 깨끗한 도시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 - 오물처리를 중심으로」, 『도시문제』9(11), 1974, 60-77쪽.
가.